



# 차 례

Contents

## 이슈와 진단

중국 지방정부의 온라인 정부서비스 활용 현황 및 시사점	02
--------------------------------	----

---

## 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

1. 정책동향	19
2. 국제교류동향	20
	25

---

## 현대중국의 이해

홍위병 용도폐기와 린바오의 죽음	28
	29

---

## 충남 속의 중국

중국 무역선과 사신들이 드나들었던 안흥항과 안흥정	39
	40

---

## 충청중국포럼 소식

제33·34회 충청중국포럼소식	45
	46

---

## 발간목록

	5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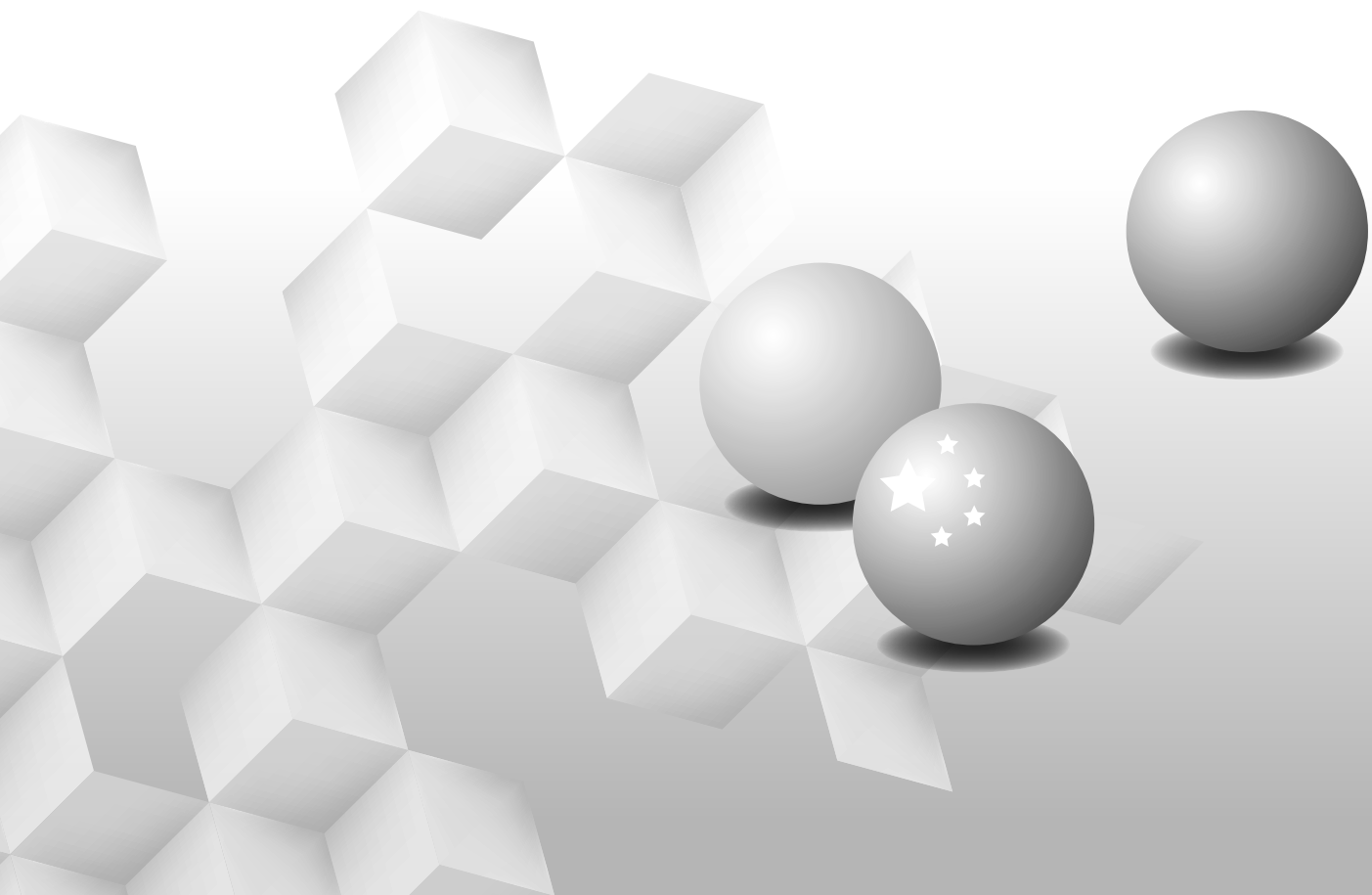


# 중국 지방정부의 온라인 정무서비스 활용 현황 및 시사점

김현수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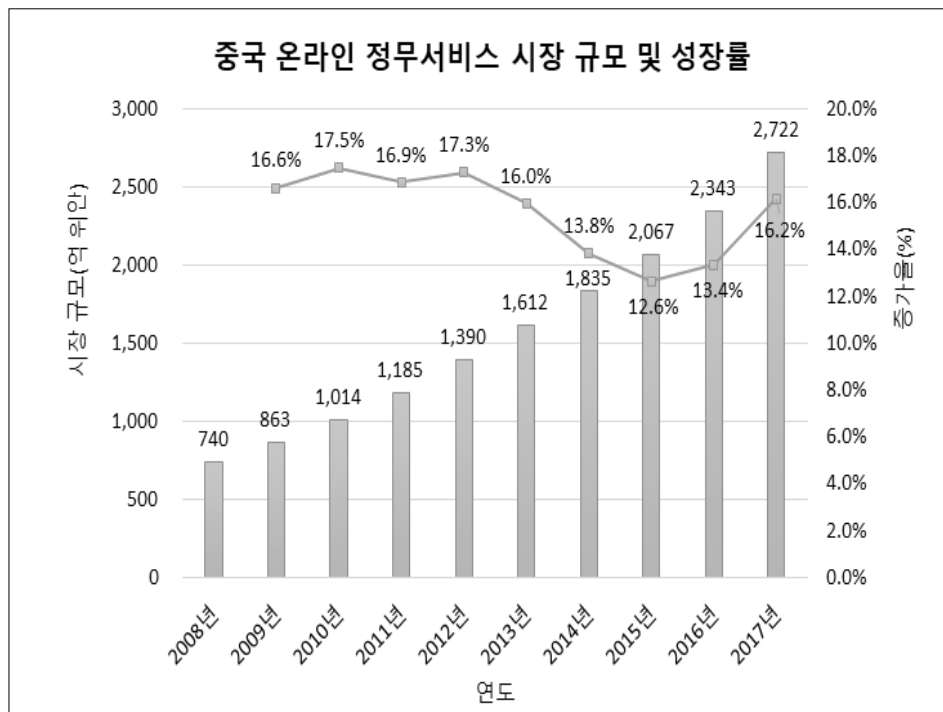
중국인민대학 지역경제 및 도시관리연구소 객원연구원



## I. 중국 온라인 정부서비스 활용 현황

### 1. 중국 온라인 정부서비스 시장 확대

- 중국 온라인 정부서비스란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APP ▲위챗 공중hao(微信公眾號) ▲웨이보(微博) ▲기타 등 방식을 통해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정보를 공개하고 온라인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특히 최근에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부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적극 양성기로 하여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15년 2월 '뉴미디어 정부 생성 및 발전 경험 교류회'에서는 최초로 ▲모바일 APP ▲위챗 ▲웨이보 등의 소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부서비스 제공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이 세 가지 뉴미디어를 일컬어 양미일단(兩微一端)이라고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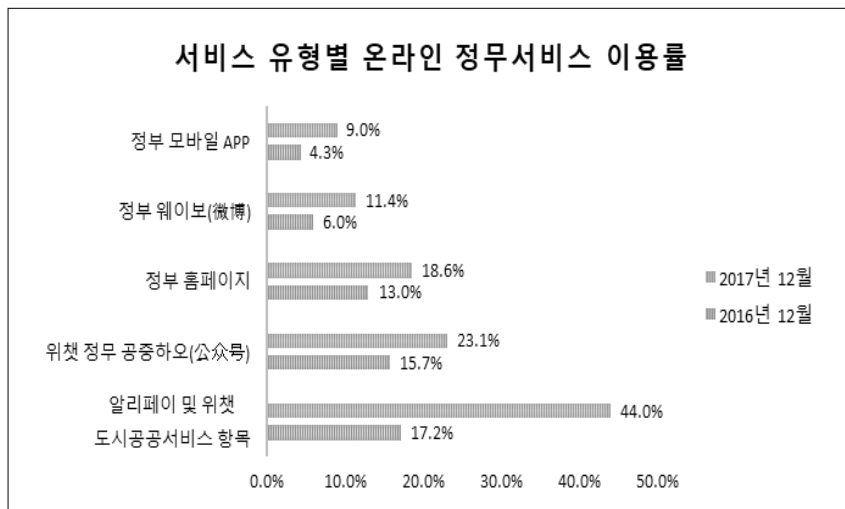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온라인 정부서비스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자료: 블록데이터(鏈塔智庫) 연구보고

- 온라인 정부서비스 시장은 최근 10여 년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 또한 약 3천억 위안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블록데이터(鏈塔智庫)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온라인 정부서비스 시장 규모는 2,722억 위안으로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5%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에는 3천억 위안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림 2> 2016~2017년 서비스 유형별 온라인 정부서비스 이용률

자료: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센터(CNNIC), 《제41차 중국 인터넷 발전현황 통계보고》 자료 인용

- 온라인 정부서비스는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시민들에게 친숙한 모바일 APP과 연동한 도시공공서비스 프로그램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센터(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이하, CNNIC)에서 연 2회 발표하는 '중국 인터넷 발전 현황 통계 보고'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전체 인터넷 사용인구의 62.9%인 약 4억 8천 5백만 명이 온라인 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온라인 정부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에 비해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크게 성장했는데, 정부 전용 모바일 APP은 2016년 12월 4.3%에서 2017년 12월 9%로 증가했으며, 중국의 블로그인 웨이보를 활용한 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 12월 6%에서 2017년 12월 11.4%, 정부기관 홈페이지 이용률은 2016년 12월 13%에서 2017년 12월 18.6%로 증가했다. 또한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의 공중 계정을 활용한 정부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 12월 15.7%에서 2017년 12월 23.1%로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 위챗 등의 프로그램에서 도시공공서비스 전문

항목을 연동한 서비스 이용률이 2016년 말 17.2%에서 2017년 44%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 2. 온라인 정부서비스의 정책적 성장과 지방화

- 온라인 정부서비스는 중앙 정부의 인터넷+ 정책과 연계되어 2016년부터 정책적으로 적극 양성하고 있는 중점 사업 중 하나이다.

2015년 '인터넷+(互聯網+)' 정책의 본격적인 실시 이후, 2016년 양회(兩會)의 '정부공작보고(2016年政府工作報告)'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에 의해 '인터넷+정부서비스(互聯網+政務服務)'의 개념이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이후 국무원에서 '인터넷+정부서비스 업무의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關於加快推進“互聯網+政務服務”工作的指導意見)'과 '인터넷+정부서비스 기술 체계 수립 지침(“互聯網+政務服務”技術體系建設指南)' 등의 정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정부서비스의 전국 통일 체계 수립에 관한 내용이 정책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업무 체계의 효율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중국 온라인 정부서비스 관련 정책 발표

발표 시기	부서	정책문건
2014년 12월 1일	국무원 판공청	정부 홈페이지 정보 내용의 질적 강화에 관한 의견 (關於加強政府網站信息內容建設的意見)
2015년 4월 7일	국무원	인터넷+ 정책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지도 의견 (關於積極推進“互聯網+”行動的指導意見)
2016년 4월 26일	국무원 판공청	국가발개위 등 부문과 연계한 인터넷+정부서비스의 정보 대중 공개 시범실시 방안에 관한 통지 (關於轉發國家發展改革委等部門推進“互聯網+政務服務”開展信息惠民試點實施方案的通知)
2016년 5월 24일	국무원	2016년 정부 간소화 및 권리 이양, 관리 완화 등 효율적인 서비스 개혁 업무의 중점 통지 (關於印發2016年推進簡政放權放管結合優化服務改革工作要點的通知)
2016년 9월 29일	국무원	인터넷+정부서비스 업무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 (關於加快推進“互聯網+政務服務”工作的指導意見)
2017년 1월 12일	국무원 판공청	인터넷+정부서비스 기술 체계 수립에 관한 지침 통지 (關於印發“互聯網+政務服務”技術體系建設指南的通知)
2017년 5월 18일	국무원 판공청	정부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 및 공유 실시 방안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政務信息系統整合共享實施方案的通知)
2017년 7월 5일	국무원 판공청	전국적인 정부 간소화 및 권리 이양, 관리 완화 등 효율적인 서비스 개혁 화상회의 주요 업무 분담 방안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全國深化簡政放權放管結合優化服務改革電視電話會議重點任務分工方案的通知)

2018년 6월 22일	국무원 판공청	인터넷+정부서비스 추진 가속화 및 정부서비스의 '1망, 1문, 1차 개혁' 실시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進一步深化“互聯網+政務服務”推進政務服務“一網、一門、一次”改革實施方案的通知)
2018년 7월 31일	국무원	전국 온라인 정부서비스 플랫폼 일체화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 (關於推進全國一體化在線政務服務平臺建設的指導意見)

자료: 관련 자료 필자 정리.

- 온라인 정부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도 이미 중요한 정책적 화두로 대두하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의 성급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책 목표로 지정하여 양성하고 있다.  
2017년 31개 성/자치구/직할시의 정부공작보고에서 인터넷과 연계한 정부서비스 활용을 강조하는 문장을 삽입하여 지역별 온라인 정부서비스 양성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2017년 성급 지방정부 정부공작보고 중 온라인 정부서비스 관련 내용 정리

성/시	2017년 각 성/시 정부공작보고 내용 정리
베이징(北京)	정부서비스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추진에 진력해 기업과 민중의 업무에 편리성 제공(加快四級政務服務體系建設, 大力推行“互聯網+政務服務”, 讓企業和群眾辦事更方便)
상하이(上海)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확대, 디지털 정부 클라우드 기본 구조 건설 및 인터넷 정부 관련 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동, 온오프라인 정부서비스의 통합 및 정부서비스 제공 항목 관리 등(推廣“互聯網+政務服務”, 構建電子政務雲基本框架, 把網上政務大廳、事中事後綜合監管平臺等重點應用遷移上雲. 制定發布政務服務事項目錄, 實現實體政務大廳與網上政務大廳的銜接通辦.)
톈진(天津)	도시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가속화 및 인터넷 정부 기반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인터넷+정부서비스' 수준 제고(加強公共服務平臺建設, 加快建設審批“網上大廳”, 提升“互聯網+政務服務”水平.)
충칭(重慶)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확대, 창업 및 혁신 정책에 부합하는 인터넷 플랫폼 구축, 정부서비스의 스마트화, 보편화 실현(推廣“互聯網+政務服務”, 建成適應大眾創業、萬眾創新需要的網上平臺, 實現政務服務智能便捷、公平可及.)
허베이(河北)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실시, 정보 공백 최소화 및 정부 간소화, 디지털화 실시(實施“互聯網+政務服務”, 打通信息孤島, 實行“一號申請、一窗受理、一網通辦”.)
랴오닝(遼寧)	정부 기능의 변화 가속화,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추진(加快轉變政府職能. 推行“互聯網+政務服務”.)
헤이룽장(黑龍江)	'인터넷+' 정책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전면적인 추진(全面推動“互聯網+”審批和公共服務)
저장(浙江)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의 전면적인 추진, 각종 시민서비스의 '온라인 자문, 온라인 처리, 증서 택배 송달 서비스' 실현, 즉 '무방문' 시스템의 단계적 확립(全面推行“互聯網+政務服務”, 逐步形成各項便民服務“在線諮詢、網上辦理、證照快遞送達”的“零上門”機制.)
푸젠(福建)	기본 공공서비스 보편화 추진,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추진, 푸젠성 내 온라인 정부서비스 플랫폼의 일체화 실현(推動基本公共服務公平共享; 推行“互聯網+政務服務”, 建成省級一體化網上政務服務平臺.)
산둥(山東)	정부관리 및 정보화의 융합 가속화, 정부 공개 표준화 및 규범화 시범 시행 검토(加快政府管理與信息化融合, 探索政務公開標準化規範化試點.)
광둥(廣東)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적극 추진, 정부서비스의 온오프라인 통합 모델 추진, 성정부 온라인 정부 기능 강화 및 시민 정부 업무 간소화(大力推進“互聯網+政務服務”, 推行“一門式一網式”政府服務模式, 拓展省網上辦事大廳功能, 開展減證便民專項行動.)

후베이(湖北)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적극 추진, 정부 정보 공개, 시민 정부 업무 간소화, 정부 업무 효율 제고(大力推行“互聯網+政務服務”, 推動政府信息共享, 開展減證便民活動, 提高政府辦事效率。)
쓰촨(四川)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전면 추진, 온라인 정부시스템 확립 및 오프라인과의 융합 발전, 정부 간소화 및 디지털화 실시, 정부 디지털화 수준 제고, 성급 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등(全面推進“互聯網+政務服務”, 推動網上政務大廳和實體政務大廳融合發展, 逐步實現“一號申請、一窗受理、一網通辦”; 提高政務信息化水平, 強化省級政務雲平臺管理應用, 建設大數據中心。)
윈난(云南)	정부 공개 및 공공자원 관리 체계 전면 강화, 디지털 정부 발전 강화, 보다 효율적인 '인터넷+정부서비스' 신 모델 검토,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全面推進政務公開和公共資源交易管理, 大力發展電子政務, 努力打造便捷高效的“互聯網+政務服務”新模式, 推進公共數據開放共享。)
광시(广西)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추진, 전 자치구 내 일체화된 온라인 정부서비스 플랫폼 구축, 각종 서비스 업무 온라인 운용 역량 강화(推行“互聯網+政務服務”, 建成全區一體化網上政務服務平臺, 力爭實現各類服務事項全流程網上運行。)
닝샤(宁夏)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추진, 온라인 업무, 서비스, 관리 강화, 온라인 정부시스템 확립 및 오프라인과의 융합 발전(推進“互聯網+政務服務”, 推行網上辦事、網上服務、網上監管, 形成網上與大廳、線上與線下相結合的政務服務新模式。)
산시(山西)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추진, 온오프라인 정부서비스 기능 강화 및 성내 정부서비스의 일체화, 정부 간소화 및 디지털화 실시(推進“互聯網+政務服務”, 提升“兩平臺”服務功能, 建設全省政務服務“一張網”, 實現服務事項“一號申請、一窗受理、一網通辦”。)
지린(吉林)	정부서비스의 일체화, 온라인 정부서비스 및 처리시스템 융합 발전(完善政務服務“一張網”, 推動實體政務大廳、網上辦事大廳融合發展。)
장쑤(江蘇)	정부서비스의 온라인 일체화 및 더욱 정확하고 빠른 정부서비스 제공(充分發揮政務服務“一張網”作用, 使政府的服務更加精準便捷。)
안후이(安徽)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적극 추진, 정부 간소화 및 디지털화 실시(大力推行“互聯網+政務服務”, 實行“一號申請、一窗受理、一網通辦”, 開展“減證便民”專項行動, 最大程度方便群眾和企業。)
장시(江西)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 실시, 정부 전 과정의 온라인화 실시(按照“應上必上, 全程在線”要求, 推動省本級服務事項網上辦理和窗口辦理; 實施公共數據資源開放共享工程。)
허난(河南)	행정 개혁 심화 추진 및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가속화(深入推進行政改革, 加快推進“互聯網+政務服務”)
후난(湖南)	정부서비스의 네트워크화 전면 촉진,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가속화(全面推行網絡化服務管理, 加快推進“互聯網+政務服務”。)
하이난(海南)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적극 추진, 정부 간소화 및 디지털화 실시(大力推行“互聯網+政務服務”, 實行“一號申請、一窗受理、一網通辦”。)
구이저우(貴州)	'인터넷+정부서비스' 정책 적극 추진, 인터넷 정부서비스의 규범화, 효율화, 혁신 및 서비스정보 전면 공개, 디지털 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확립(大力推行“互聯網+政務服務”, 規範網上服務事項, 優化網上服務流程, 創新網上服務模式, 全面公開服務信息; 用好電子政務雲, 提升完善各種雲平臺。)
산시(陝西)	전 성내 '인터넷+정부서비스' 시스템 구축 가속화, 통일 온라인 정부창구 완비 및 온라인 처리시스템 확립(加快推進全省“互聯網+政務服務”體系建設, 完成省級政務大廳提升改造工程, 建成全省網上辦事大廳統一辦理平臺。)
칭하이(青海)	데이터 센터 및 디지털 정부, 기업 정보화, 물류체인 정보화 실시(實施數據中心、數字政務、中小企業信息化、物聯網等信息化工程。)

네이멍구(內蒙古)	정부 공개 적극 추진, 디지털 정부 및 온라인 처리 확대 및 행정 효율 제고(大力推進政務公開, 推廣電子政務和網上辦事, 行政效能進一步提高。)
티벳(西藏)	디지털 정부 및 광대역 농촌 보급 프로젝트 전면 촉진(全面推進電子政務和寬帶進村工程。)
신장(新疆)	디지털 정부 건설, 정부 정보 및 데이터 개방 확대, 각급 정무서비스 및 공공자원 거래 센터 건설 촉진, 전 자 치구 내 통일된 정무서비스 플랫폼 구축 가속화(推進電子政務建設, 加大政府信息數據開放力度, 積極推進各級政務服務和公共資源交易中心建設, 加快形成全區統一的政務服務平臺。)
간쑤(甘肅)	'인터넷+정무서비스' 시스템 건설 가속화, 온오프라인 정무서비스 플랫폼 융합 촉진, 서비스 질량 및 효율 제고(加快構建“互聯網+政務服務”體系, 推動實體政務大廳與網上服務平臺深度融合, 進一步提高服務質量和效率。)

자료: 관련 자료 필자 정리.

## II. 유형별 지역 온라인 정무서비스 현황

- 본 장에서는 지방정부 온라인 정무서비스를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센터(CNNIC)의 분류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웨이보 ▲웨이신 공중하오 ▲모바일 APP 연동 도시공공서비스 등 4가지 플랫폼으로 구분하여 이용 현황을 살펴 볼 것이다.

### 1. 인터넷 홈페이지

-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정부기관 성격의 인터넷 사이트 수는 약 4만 8천개로 각 성별로 편차가 많으나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 보유 현황은 이미 포화상태에서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NNIC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정부기관 성향을 가지는 인터넷 사이트(.GOV. CN) 수는 모두 47,941개로, 이 중 산둥성, 저장성, 장쑤성, 쓰촨성 등이 3,000개를 초과 하는 정부기관 성격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각 성별로 최대 3,900여개에서 250여개까지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중소 행정 구역(지급시, 현급시 등)을 많이 포함하는 성 단위의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6년 말 동일한 지표로 집계된 수치인 53,546개에서 전국적으로 약 500여개가 감소한 것으로, 이미 전국 지방단위의 정무 홈페이지 개설량은 이미 포화상태로 현재 조정 단

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중국 성급 행정단위 보유 .GOV.CN 사이트 현황(2017년 12월 기준)

순위	성/시	2016년 말 사이트 수(개)	2017년 말 사이트 수(개)	증감
1	산둥(山東)	4,341	3,890	▼
2	저장(浙江)	3,714	3,261	▼
3	장쑤(江蘇)	3,910	3,167	▼
4	쓰촨(四川)	3,760	3,029	▼
5	광둥(廣東)	3,120	2,822	▼
6	허난(河南)	2,545	2,542	▼
7	안후이(安徽)	2,583	2,049	▼
8	베이징(北京)	2,201	2,023	▼
9	후베이(湖北)	2,395	1,952	▼
10	허베이(河北)	2,063	1,761	▼
11	푸젠(福建)	1,881	1,662	▼
12	산시(陝西)	1,870	1,577	▼
13	구이저우(貴州)	1,535	1,539	▲
14	장시(江西)	1,295	1,329	▲
15	후난(湖南)	1,542	1,317	▼
16	네이멍구(內蒙古)	1,528	1,314	▼
17	랴오닝(遼寧)	1,386	1,244	▼
18	헤이룽장(黑龍江)	1,253	1,203	▼
19	윈난(雲南)	1,205	1,192	▼
20	산시(山西)	1,288	1,180	▼
21	광시(廣西)	1,002	1,073	▲
22	간쑤(甘肅)	1,067	1,006	▼
23	충칭(重慶)	1,028	923	▼
24	지린(吉林)	927	893	▼
25	신장(新疆)	776	660	▼
26	상하이(上海)	628	619	▼
27	칭하이(青海)	491	482	▼
28	텐진	414	386	▼

29	닝샤(寧夏)	347	369	▲
30	티벳(西藏)	278	277	▼
31	하이난(海南)	250	248	▼
	기타	923	952	▲
	합계	53,546	47,941	▼

자료: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자료 정리 및 활용.

## 2. 웨이보 정무서비스

◆ 중국의 블로그인 웨이보를 활용한 정무서비스는 2009년 최초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후난성 타오원현(桃源縣)의 공식 웨이보 계정인 타오원망(桃源網)이 정식으로 개설된 이래,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단위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도 웨이보 계정을 활용한 정무서비스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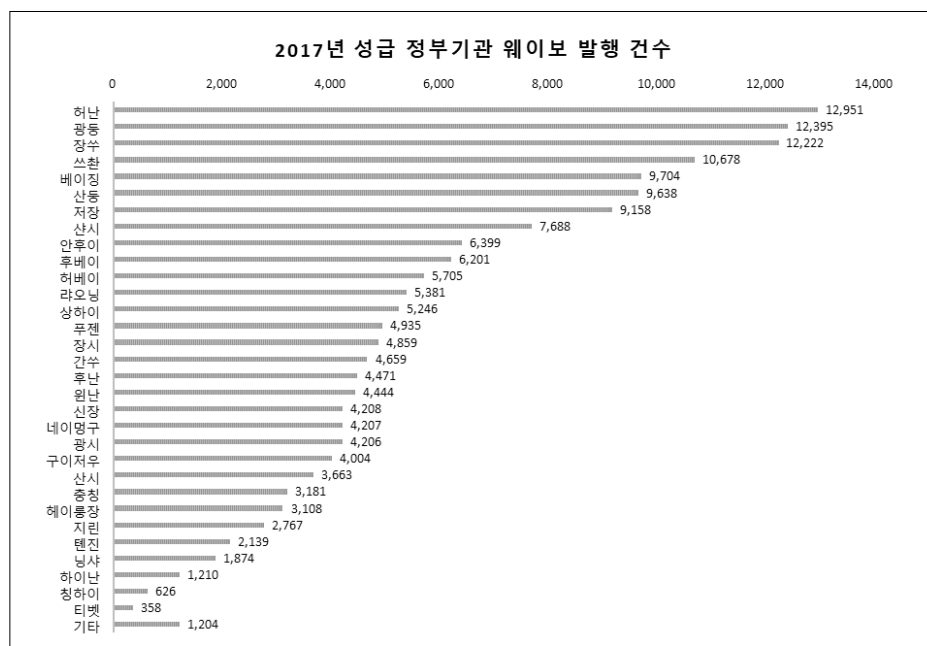
웨이보는 블로그 형식의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보다 더욱 소통에 유리하고 정보 업로드 및 열람이 간편하여 이를 활용한 정무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해왔다.

◆ 2017년에도 웨이보 정무서비스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활용 단위가 매우 세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용 수준에서도 매우 높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12월 기준 웨이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랑(新浪)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부기관 웨이보의 연간 발행 건수는 13만 4,827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6년 약 12만 5천 건에서 1만 건 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지역별로는 허난성이 12,951건으로 가장 많은 발행 건수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광둥성이 12,395건, 장쑤성 12,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웨이보 발행 건수 중 행정단위가 현급 이하이거나 부서단위에서도 가장 낮은 처급 단위에서 대부분의 웨이보 발행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정부부문 웨이보는 주로 ▲공안(公安) ▲홍보 ▲기층조직 ▲사법행정 ▲교통운수 ▲관광 부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 한해 동안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공유 건수를 기록한 웨이보 계정은 '중앙공청단(共青團中央)'으로 약 7백만 건에 달하는 공유 횟수를 기록하였다. 이 밖에도 상하이시, 장쑤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의 지역에 위치한 계정이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였으며, ▲공안부 ▲지진대 ▲검찰국 ▲법원 등 전국 단위의 중앙 기관 계정에서도 많은 네트워크 활동을 기록하였다.



<그림 3> 2017년 성급 정부기관 웨이보 발행 건수

자료: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표 4> 2017년 1~12월 간 정부 웨이보 공유 건 최대 순위

순위	웨이보 계정명	소재지역	업무범위지역	분류	공유 건수(건)
1	共青團中央	베이징시	전국	단체	6,894,461
2	上鐵資訊	상하이시	상하이시	교통	5,236,559
3	公安部打死黑除四害	베이징시	전국	치안	4,422,269
4	中國文明網	베이징시	전국	문화	3,591,581
5	鼓樓微訊	장쑤성	구러우시	홍보	3,312,103
6	中國地震臺網速報	베이징시	전국	환경	2,150,846
7	濱海發布	텐진시	텐진시	홍보	1,338,890
8	中國消防	베이징시	전국	치안	1,302,062
9	樂遊上海	상하이시	상하이시	관광	1,160,058
10	成都高新	쓰촨성	청두시	홍보	942,629
11	公安部交通安全微發布	베이징시	전국	치안	909,079
12	最高人民檢察院	베이징시	전국	검찰국	899,002
13	秦淮發布	장쑤성	친화이시	홍보	840,395
14	最高人民法院	베이징시	전국	법원	813,011

15	河南檢察	허난성	허난성	검찰국	783,441
16	南昌鐵路	장시성	난창시	교통	734,208
17	甬橋教育	안후이성	용차오시	교육	657,231
18	共青團中央學校部	베이징시	전국	단체	655,836
19	故宮博物院	베이징시	베이징시	문화	639,675
20	平安北京	베이징시	베이징시	치안	636,725

자료: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CNNIC),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 3. 위챗 공중하오(公眾號)

-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이자 복합 SNS 기능(朋友圈), 온라인 결제 기능(Wechat Pay) 등을 포괄하고 있는 위챗은 2012년 8월 23일부터 공중하오 플랫폼을 정식으로 시행하였다.  
중국 유명 온라인 서비스 기업인 텐센트(騰訊)가 2011년 최초로 개발한 위챗은 현재 중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복합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결제, SNS,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공중하오 서비스는 1대다 서비스 기술에 기반해 개인 또는 기업, 정부 등의 단체가 개인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식적인 업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계정을 사용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 현재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위챗 공중하오를 활용한 온라인 정무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계정을 비롯해, 정부 주요 부처 계정, 각 성시의 홍보소식지(發布) 등 정무서비스 공중하오 계정은 이미 2014년 12월에 약 17만 개를 초과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상하이시는 위챗 공중하오를 활용한 정무서비스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 중 하나로, 201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데이터를 수집, 공개하고 있다.  
공중하오 계정 중 하나인 상하이 발표(上海發布)에서 2018년 1월 공개한 2017년 상하이 공중하오 정무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보면, 2017년 상하이 지방 정무 관련 공중하오 계정은 73개로 2016년에 비해 6개가 늘어났으며, 공중하오의 정무서비스 생산 및 영향력이 전년에 비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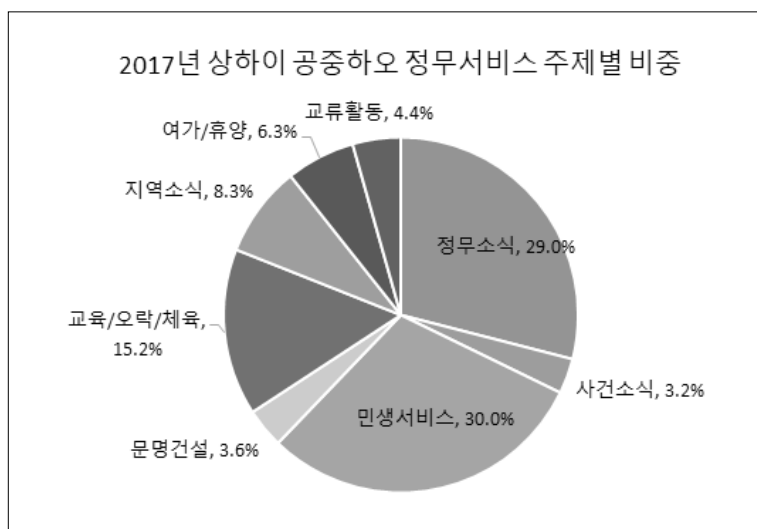
<표 5> 2016~2017년 상하이 공중하오 정무서비스 관련 지표

분류	지표	2016년	2017년	성장률
공중하오 계정 수		67	73	9.0%
생산력	연간 소식 발표 수	59,969	66,457	10.8%
	평균 1계정당 연간 소식 발표 편수	910.4	895.1	1.7%
	평균 1계정 당 일일 소식 발표 편수	2.5	2.5	-
영향력	총 열람수	147,815,172	205,861,673	39.3%
	매 편당 평균 열람 횟수	2,465	3,098	25.7%
	총 추천수	1,080,998	1,652,083	52.8%
	매 편당 평균 추천 횟수	18	24.9	38.3%

자료: 上海發布 자료 재정리.

- 주요 공중하오 계정으로는 ▲청춘 상하이(青春上海) ▲상하이 발표(上海發布) ▲상하이 세무(上海稅務) ▲상하이 적립금(上海公積金) ▲상하이 여성(上海女性) ▲상하이 관광(樂遊上海) 등 지방정부의 관련 부처 또는 주요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무서비스 계정과 ▲푸둥 발표(浦東發布) ▲진산(金山) 등 특수한 행정구역의 정무를 담당하는 계정이 있다.

2017년 상하이 정무서비스 공중하오 계정에서 다루었던 소식은 ▲민생서비스(30%) ▲정무소식(29%) ▲교육/오락/체육(15.2%) ▲지역소식(8.3%) ▲여가/휴양(6.3%) ▲교류활동(4.4%) ▲문명건설(3.6%) ▲사건소식(3.2%) 등으로 전통적인 정무 업무 외에도 문화, 오락, 행사 등의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2017년 상하이 공중하오 활용 정무서비스의 주제별 비중

자료: 上海發布 자료 재인용.

- 공중하오를 활용한 정무서비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방대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 공개되고 있지 않아 아직 심도있는 연구 및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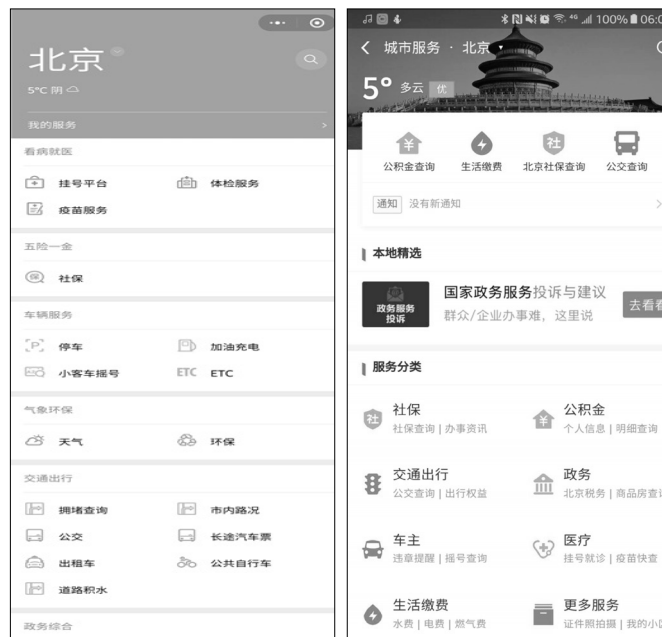
방대한 SNS 형식의 플랫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빅데이터 기술이 투입되어 통계가 수집, 관리되어야 하나, 아직은 상하이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하이시의 경우에도 2016년에 시작되어 2년 간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뿐이다.

#### 4. 모바일 APP 연계 도시공공서비스

- 도시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최근 들어 시민들에게 친숙한 모바일 SNS,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과 결합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는 위챗 메신저와 알리페이 등 주요 모바일 APP에서는 해당 SNS 기능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결합한 도시공공서비스 전문 항목을 개설하여 해당 도시의 정무 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위챗에서는 2014년 12월 광저우시를 시작으로 2015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알리페이에서는 기존 생활 공공서비스 부문을 2017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도시공공서비스 항목으로 통합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5> 베이징 위챗 도시공공서비스(좌)와 알리페이 도시공공서비스(우) 정보화면  
자료: 필자 촬영.

- 주요 기능으로는 ▲사회보장 ▲교통 ▲차량 ▲의료 ▲공공요금 ▲정무 종합 ▲법률 ▲문화·예술 ▲교육 등 해당 도시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전반을 아우르고 있으며,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는 SNS 기능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비용 납부, 예약 등의 매우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III. 평가 및 총남예의 시사점

- [특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온라인 정무서비스는 최근 3~4년간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다양한 플랫폼 활용 시도 ▲선도적인 IT 기술과 결합한 복합 정무서비스로의 발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2015년 이후 국무원의 온라인 정무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온라인 정무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 ② 다양한 플랫폼 활용 시도 및 병존

현재 중국의 온라인 정무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 웨이보, 위챗 공중hao 및 도시공공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정무서비스가 병존하고 있는 시기로 볼 수 있다.

#### ③ IT 기술과 연계한 복합 정무서비스의 출현

특히 최근에는 텐센트, 알리바바 등 IT 기업의 기술과 연계한 복합 정무서비스가 빠르게 대두하고 있으며, 이는 SNS, 온라인 결제 시스템 등 가장 대중적이고 선도적인 IT 기술과 연계한 도시공공서비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문제점]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나타났는데, ▲통일된 정무시스템의 부재 ▲유형별로 서로 중복되는 서비스 ▲다양한 채널 서비스의 시도로 인한 과열 양상 ▲관련 데이터 및 연구 역량 부재 등이다.

#### 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무시스템의 부재

중국은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산발적으로 정책적 시도와 새로운 채널 모색 등이 이루어져 온라인 정무시스템 구축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서로 상이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17년 중반 이후 온라인 정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시작하였다.

## ② 유형별로 중복되는 서비스

새로운 채널을 통한 서비스의 확대는 긍정적이나, 이에 따라 기존의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채널에 따른 기능의 분화로 인한 비효율성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③ 서비스 채널의 과잉 공급

정부 부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는 이미 사이트 수에서 과잉공급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 웨이보, 위챗 등에서도 이용량이 부족하여 방치되거나 폐지되는 계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④ 관련 데이터 및 연구 역량 부재

중국의 온라인 정부서비스 시스템은 매우 빠르게 변화와 발전을 거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관련한 통계 데이터 수집이나 이에 기반한 분석이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SNS 기술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현상으로 빅데이터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인식과 역량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정부서비스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온라인 정부서비스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UN 연구보고서(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8)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은 모두 이미 디지털 정부서비스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온라인 정부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수준 또한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sup>1)</sup> 또한 정부 서비스 채널에 따른 상대 비용 역시 디지털 채널이 압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sup>2)</sup> 이러한 측면에서 충청남도도 중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플랫폼의 온라인 정부서비스가 시도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UN 연구보고서에서는 2018년 한국의 EGD(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는 0.9010로 매우 높은(Very High EGD) 단계로 세계 3위의 수준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경우 EGD가 0.6811로 역시 높은(High EGD) 수준이며, 세계에서는 65위 정도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온라인 정치 참여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해 중국과 한국 모두 EPI(E-participation Index)가 최고 수준인 '매우 높은(very high) 단계'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덴마크, 핀란드와 함께 최고치인 1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 영국 정부 디지털 효율성 보고서(UK Government Digital Efficiency Report)에서는 정부서비스의 채널에 따른 상대 비용을 측정하였는데, 디지털 채널이 1이라고 가정할 경우 전화 20, 우편 30, 대면 50의 상대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6> 2017년 중국 성급 행정단위 온라인 정무서비스 역량 순위

순위	성/시	총점	서비스 방식 완비성 지수	서비스 업무 범위 지수	업무 지침 정확도 지수	온라인 처리 속련도 지수	온라인 서비스 효율성 지수
1	저장(浙江)	94.26	96.70	90.17	92.56	98.39	94.45
2	장쑤(江蘇)	93.93	94.75	92.83	86.89	89.91	93.64
3	구이저우(貴州)	93.76	94.78	91.21	98.76	91.63	86.06
4	광둥(廣東)	93.25	96.32	86.65	95.89	92.28	94.37
5	안후이(安徽)	90.90	91.68	90.39	98.62	84.55	79.93
6	베이징(北京)	85.89	89.14	90.29	88.87	81.17	71.13
7	푸젠(福建)	84.39	88.30	74.82	89.80	85.11	78.01
8	충칭(重慶)	83.35	81.98	79.00	88.95	76.95	90.80
9	쓰촨(四川)	82.75	83.23	84.19	86.65	84.40	83.88
10	산둥(山東)	82.50	91.10	76.05	81.63	85.07	75.64

자료: 中國國家行政學院電子政務研究中心, 《2018年省級政府網上政務服務能力調查評估報告》.

- 중국 지방정부 중 온라인 정무시스템 구축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저장성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충칭남도는 이러한 데이터에 기준하여 이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성/시들에 대한 연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UN 연구보고서의 EGD I 지수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 내에서도 2015년부터 지역별로 온라인 정무서비스 수준을 조사, 발표하고 있는데,<sup>3)</sup> 이에 따르면 저장성의 종합 디지털 정무서비스 수준이 94.26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쑤(93.93), 구이저우(93.76), 광둥(93.2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충칭남도는 중국의 ▲허베이성(1994.10) ▲옌벤시(2002.4) ▲지린성(2005.9) ▲장쑤성(2005.9) ▲상하이시(2008.11) ▲랴오닝성(2010.11) ▲윈난성(2013.6) ▲칭하이성(2014.9) ▲헤이룽장성(2015.1) ▲광둥성(2016.6) ▲구이저우성(2016.11) ▲쓰촨성(2018.9)) 등 12개 성/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 중 온라인 정무서비스 역량이 높다고 평가된 성/시는 장쑤성, 구이저우성, 광둥성, 쓰촨성, 산둥성 등이 있다. 충칭남도는 이러한 우호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 지방정부의 온라인 정무서비스 발전 경험들을 교류하고 나아가 상호 국제업무 부문에서의 정무서비스 교류까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UN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2015년부터 중국국가행정학원의 디지털정부연구센터에서 매년 '중국 디지털 정부 발전 조사 보고'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 '2018년 성급 정부단위 온라인 정무서비스 역량 조사 평가 보고'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EGD I 지수는 ▲온라인 처리 속련도 ▲서비스 업무 범위 ▲서비스 방식 완비성 ▲업무 지침의 정확도 ▲온라인 서비스 효율성 등 5개 부문 각각 100점 만점으로 측정되어 총점을 산출한다.

참고문헌

〈보고서 및 논문〉

UN(2018),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8, New York.

電子政務研究中心(2018), 2018年省級政府網上政務服務能力調查評估報告, 中國國家行政學院.

前瞻產業研究院(2018), 2018-2023年中國電子政務發展前景與投資戰略規劃分析報告.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2017), 第39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2018), 第41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黃河·常菲·薛昱琨(2018), 強化政務微信運營的戰略設計, 《網絡傳播》, 第1期.

嚮曉樵(2018), 地方政務微信的發展問題與應對策略探析, 農村經濟與科技, 第29卷 第09期.

〈기사 및 인터넷〉

2017年上海政務微信年度報告發布!, 2018-01-18, 上海發布

2018年中國電子政務行業發展現狀及未來發展趨勢分析, 2018-06-19, 中國產業信息網

## 중국 지방정부 정책 및 교류 동향

### ▶ 정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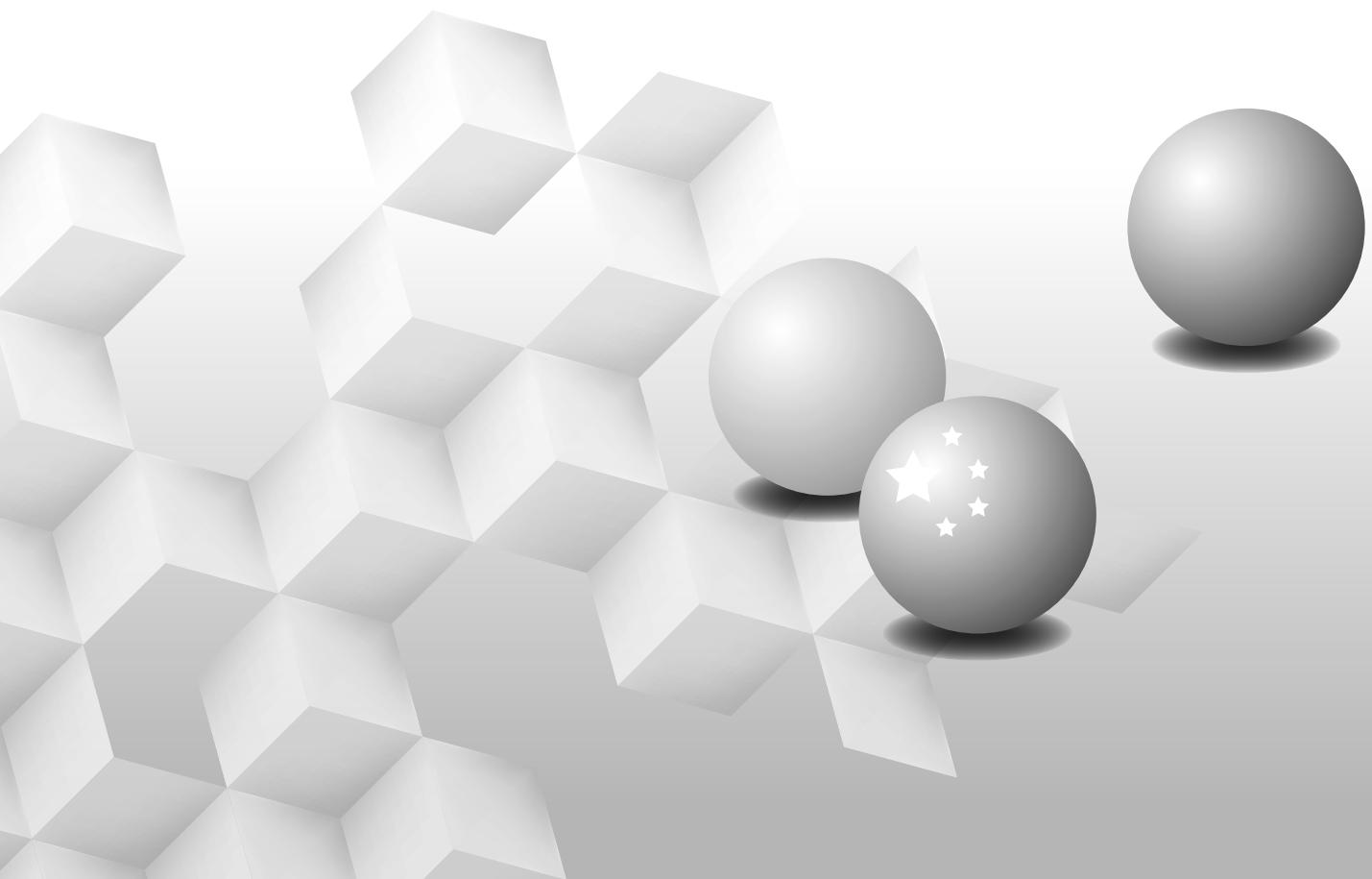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총체 방안』 발표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 기념관 개관

### ▶ 국제교류동향

선양시, 중일 에너지환경기업 설비교류상담회 개최  
지린성, 당일치기 북한 해산물관광이 중국 먹방족을 움직인다

전춘복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총체 방안』 발표

2018년 8월 27일, 랴오닝성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총체 방안 (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을 통해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몽골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동북아지역의 협력 국면을 조성해 동북아 경제화랑을 조성 및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발표하였다.



### 『랴오닝, 일대일로 노선』

랴오만어우(遼滿歐)

랴오닝, 만저우리, 유럽연결

랴오하이어우(遼海歐)

다롄항부터 북유럽 연결하는 항로  
신규개통

랴오멍어우(遼蒙歐)

단둥/진저우항에서 출발해 몽골을 거쳐  
유럽각지로 통하는 철도

<그림1> 랴오닝 일대일로 노선도

자료 : 중국청년망(中國青年網)

## 시대를 여는 새로운 한 페이지 - 『랴오닝, 일대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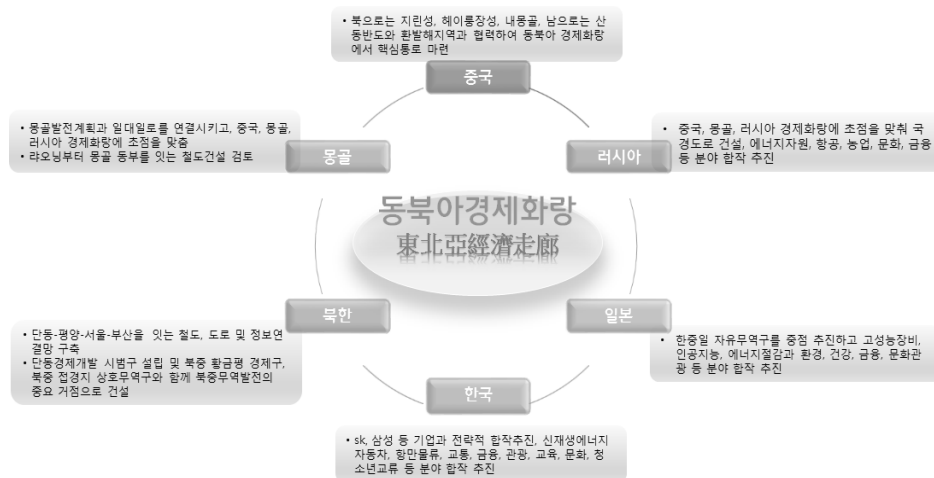
- 랴오닝성은 중국동북지역에서 항구를 보유한 유일한 성이며, 자유무역 시범구 등 유리한 조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해온 지난 5년간, 랴오닝성은 노후 공업지구 전환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이뤘고, 『랴오닝,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표1> 랴오닝성 국제적 인프라와 네트워크 현황

사업성과	세부현황
국제적인 정책소통과 네트워크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내에 미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7개국 영사관 설립</li> <li>● 27개국과 17개 우호성(주), 69개 우호도시 관계 수립</li> </ul>
인프라 연결 및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 국가들과의 『육해공망빙(陸海空網冰)』통로를 전면적으로 연결</li> <li>● 라오만어우철도(遼滿歐: 라오닝, 만주리, 유럽 연결 철도) 1,143회 운행</li> <li>● 라오하이어우항로(遼海歐: 다롄항부터 북유럽 연결 항로) 신규 개통</li> <li>● 선양, 다롄 등 8개 공항에서 총 63개 국제노선 취항</li> </ul>
대외경제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루마니아, 우간다, 인도 등 국가와 산업단지사업 추진</li> <li>● BMW자동차 투자사업,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독(독일)장비산업단지 추진</li> <li>● 라오닝 자유무역 시범구 건설과 해외지구 등 신유동 업종 강화</li> </ul>
자금유통 원활하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수출신용공사, 국가개발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자금활용의 녹색통로 마련</li> </ul>
민심상통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내 30여개 대학 2.3만명의 유학생을 활용해 국가간 교육 교류 실시</li> <li>● 세계 여러 국가와 의료건강분야·여행분야 합작기회 마련</li> </ul>

## 적극적인 정책소통을 토대로 전면개방을 위한 새로운 국면 맞이

- 동북아지역의 화해국면을 기회로, 랴오닝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중국, 몽골, 러시아의 경제화랑과 융합하고, 또한 『중, 일, 한 +X』모형(역사로 얽힌 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변국과 도모)따라 북한 문제를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몽골과 함께 동북아경제 화랑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림2> 동북아경제화랑 추진내용

- 동북아 경제화랑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SK, 삼성 등 기업과의 전략적 합작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항만물류, 교통, 금융, 관광, 교육, 문화, 청소년교류 등 분야를 합작하고자 한다.
- 북한에 대해서는 단동-평양-서울-부산을 잇는 철도, 도로 및 정보연결망 구축계획을 담았고, 적절한 시점에 단동특구를 건설하고, 황금평 경제구와 국경지역 상호무역구를 북중 무역합작의 중요한 거점으로 건설하고자 한다.

## 『육해공망빙(陸海空網冰)』통로 구축 및 상호 연결

- 2017년 기준 라오닝항구 전체 물동량이 11억톤에 달했고 다렌부터 북극동북을 잇는 라오하이어우(遼海歐)항로를 개통했으며 라오만어우열차는 총 1,143차례 운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선양, 다렌 등 8개 공항에서는 모두 63개의 국제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라오닝성 전반적으로 빅데이터와 최신 통신매체가 보급되었다.

<표2> 『육해공망빙(陸海空網冰)』통로

통로구분	추진내용
유럽-아시아육상실�크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오만어우철도(遼滿歐) : 기존 철도의 효율성 증점 제고</li> <li>● 라오신어우철도(遼新歐) :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철도 개척</li> <li>● 라오훈어철도(遼琿俄) : 단동항에서 출발해 훈춘항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신 노선 설계</li> <li>● 중국과 러시아 도로교통운송 TIR(다렌-노보시비르스크) 구축</li> <li>● 단동과 북한 신의주, 평양을 관통하는 도로 건설</li> <li>● 잉커우항을 육로와 항로의 물류집산지로 건설</li> </ul>
중국-유럽열차 시장성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오닝 중어우열차(中歐班列) 집결중심 건설</li> <li>● 중어우열차(中歐班列)와 국경간 전자상거래 융합 발전 촉진</li> <li>● 르랴오어우(日遼歐), 한료우어우(韓遼歐)를 위한 컨테이너 해상운송과 철도운송 연합 신모델 개척</li> </ul>
해상실�크로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평양지역 국가급 경제개발구와 다렌자유무역항 건설 추진</li> <li>● 다렌동북아국제항운중심과 황해발해만 세계급 항구 집산지 건설</li> <li>● 라오하이오우(遼海歐: 다렌-남중국해-유럽)노선을 동쪽 및 남쪽으로 확장해 일본, 한국, 북한 및 동남아 항구와 해상통로 개척</li> </ul>
공중실�크로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양, 다렌 공항 144시간 입국비자 면제 등 추진</li> <li>● 선양, 다렌 공항과 일본, 한국, 러시아 등 동북아국가의 항공노선 추가 및 신설</li> <li>● 선양, 다렌, 단동으로 부터 북한, 러시아지역과의 항공취항 수준 강화</li> <li>● 선양-프랑크푸르트 노선 안정화, 적절한 시기에 북미노선 취항</li> </ul>
빙상실�크로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렌, 잉커우부터 북극해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라오하이오우항로의 안정적 운영으로 북극동북 신해양 운송통로 마련</li> <li>● 라오닝항구와 가스기업의 합작모형 추진</li> <li>● 북극동북으로 가는 연안지역 항구 건설, 가스산업단지 건설 적극 동참</li> </ul>
데이터(망) 실�크로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양국가빅데이터 종합 시범구 건설</li> <li>● 일대일로 빅데이터분석중심 다렌분점 건설 추진</li> <li>● 다렌동북아국제항운 빅데이터중심, 동북아 빅데이터 지적재산권거래소 설립 검토</li> </ul>

##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기념관 개관



<그림 1>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 기념관 전경 및 홈페이지

자료 :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 기념관 홈페이지

2018년 9월 29일 오전,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기념관(이하 ‘항일의용군 기념관’) 광장에서 개관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선양시위원회와 선양시정부가 주최하고, 환인현(桓仁县)위원회와 현정부가 주관하였다.

##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승인한 항일의용군기념관

- 랴오닝지역의 풍부한 근대역사가 항일의용군기념관 설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이 항일의용군에서 유래된 만큼 랴오닝 항일전쟁이 갖는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다.
  - 랴오닝은 항일의용군의 기원지이며 항일활동의 중심지역이다. 랴오닝에는 항일의용군의 유적, 유물 등 역사적 근거가 아주 많다. 진저우(錦州), 차오양(朝陽), 푸순(撫順), 테링(鐵嶺) 등은 당시 항일의용군의 중요한 활동지역이었으며, 모두 국가의 탄생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은 동북항일의용군기념관을 랴오닝에 건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랴오닝항일의용군기념관 개요

- 항일의용군기념관은 선양시 환인만족자치현 환인진(桓仁滿族自治縣桓仁鎮) 북산공원 내에 위치하는데 전체 건축면적은 2,990m<sup>2</sup> 이고 전시동 면적은 2,500m<sup>2</sup> 이다.
- 항일의용군기념관은 주제전시실(主題展廳), 국가전시실(國歌廳), 영웅열사제사실(英烈祭祀廳), 다목적실(多功能廳) 4개실로 분류된다.
- 그 중 메인인 주제전시실은 동북항일의용군 초기 항일전쟁 기록, 동북항일의용군 용감한 투쟁기록, 동북항일의용군 끈질긴 항일전쟁 기록, 동북항일의용군과 『의용군행진곡』, 역사 속에 이름을 길이 빛낸 민족영웅들 등 항일전쟁기념 관련 기록물에 대해 전시하였다.
- 전시물들은 그림·사진전시, 멀티미디어 연출, 역사장면 연출, 대형조각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지난 14년 동안 동북지역인민의 항일전쟁 역사를 표현하였다.



<그림 2>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 기념관 내부 모습

자료 :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 기념관 홈페이지

## 2011년,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 광장 조성

- 지난 2011년, 1931년 9·18사변(일명 만주사변) 80주년에 맞춰 항일 무장 투쟁에 나섰던 동북 의용군을 기리고자 선양시 동릉(東陵)구에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 광장을 조성했다. 이 기념광장에는 동북의용군의 활약 일지와 '의용군행진곡', 동북의용군대장 108명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이 때 동북의용군을 기리는 광장이 조성된 것은 중국에서는 처음있는 일이었다. 선양시는 이 광장을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3> 동북항일의용군 기념광장 전경과 의용군행진곡 기념비

자료 : 선양일보(沈陽日報)

## 중국 지방정부 국제교류 동향

### ① 랴오닝성 동향 (충남과 우호교류 체결 : 2010.11.03)



#### 선양시, 중일 에너지환경기업 설비교류상담회 개최

- 2018년 9월 25일 중일 에너지환경기업 설비교류상담회(이하 상담회)가 선양에서 개최되었다.

본 상담회는 2006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던 『중일 에너지환경종합 포럼』<sup>1)</sup>의 연속선상에서 개최되며 올해 제3회를 맞았다. 이 상담회는 일본의 에너지환경분야 기술과 관련 분야 중국 기업들을 매칭시키는 역할을 한다.

- 랴오닝성은 중국 국가급 전통 중공업단지이고, 최근 지역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늘어나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수준 업그



<그림 1> 2018지환경기업 설비교류상담회 개최 현장

자료 : 선양일보(沈陽日報)

1) 『중일 에너지환경종합 포럼』은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말에 제18회를 맞이하게 됨

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번 상담회에는 19개 일본기업을 포함한 전체 100여개 기업이 참가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문제를 놓고 교류하고, 사업기회를 모색하였다. 상담회에 참가한 19개 일본기업이 자체기술에 대해 먼저 소개했고 이를 토대로 중국과 일본기업들이 심도 있는 교류와 상담을 진행하였다.
- 상담회가 끝난 후, 일본 기업단은 선양시 중국독일산업단지계획관, BMW사 등 현지 탐방을 실시하였다.

## ② 지린성 동향 (충남과 우호교류 체결 : 2005.09.26)



### 지린성, 당일치기 북한 해산물관광이 중국 먹방족을 움직인다

- 북중 접경지역에서 양국의 관광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린성 훈춘시에서는 북한 해산물 당일치기 관광이 성행하고 있다.
- 중국 신라매체(新浪网)에 의하면, 2018년 8월 2일 기자가 북한과 지린성 훈춘의 접경지역을 방문했을 때 마침 北 나선(罗先)으로부터 당일치기 관광을 마치고 입국하는 관광객 행렬과 마주쳐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 지린성 본토인인 한 남성관광객은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다면서 “이번 여행에서 대게, 새우 등 신선한 해산물을 맘껏 먹을 수 있었다. 음료수, 주류를 포함해도 300위안밖에 안든다. 너무 만족한다”고 하였다.
- 이밖에, 훈춘지역 한 여행사에 방문하니 내부에는 북한관광에서 찍은 해산물 먹방사진들로 가득 했고, 텀게 한 마리 80위안, 설게 한 마리 50위안이라는 가격표도 붙어있었으며, 이 가격은 중국 내륙에서 볼 때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라고 하였다.
- 중국여행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 당일치기 관광상품은 지난 7월10일 개시했으며, 관광버스로 북한에 입국해 해산물을 먹고 특산품 쇼핑을 한 후 다시 돌아오는 코스이다. 관광객이 많을 때는 하루에 최대 500명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림 3> 훈춘시 북중 국경 게이트와 현지 여행사 내부에 게재한 해산물 사진

자료 : 신량매체(新浪网)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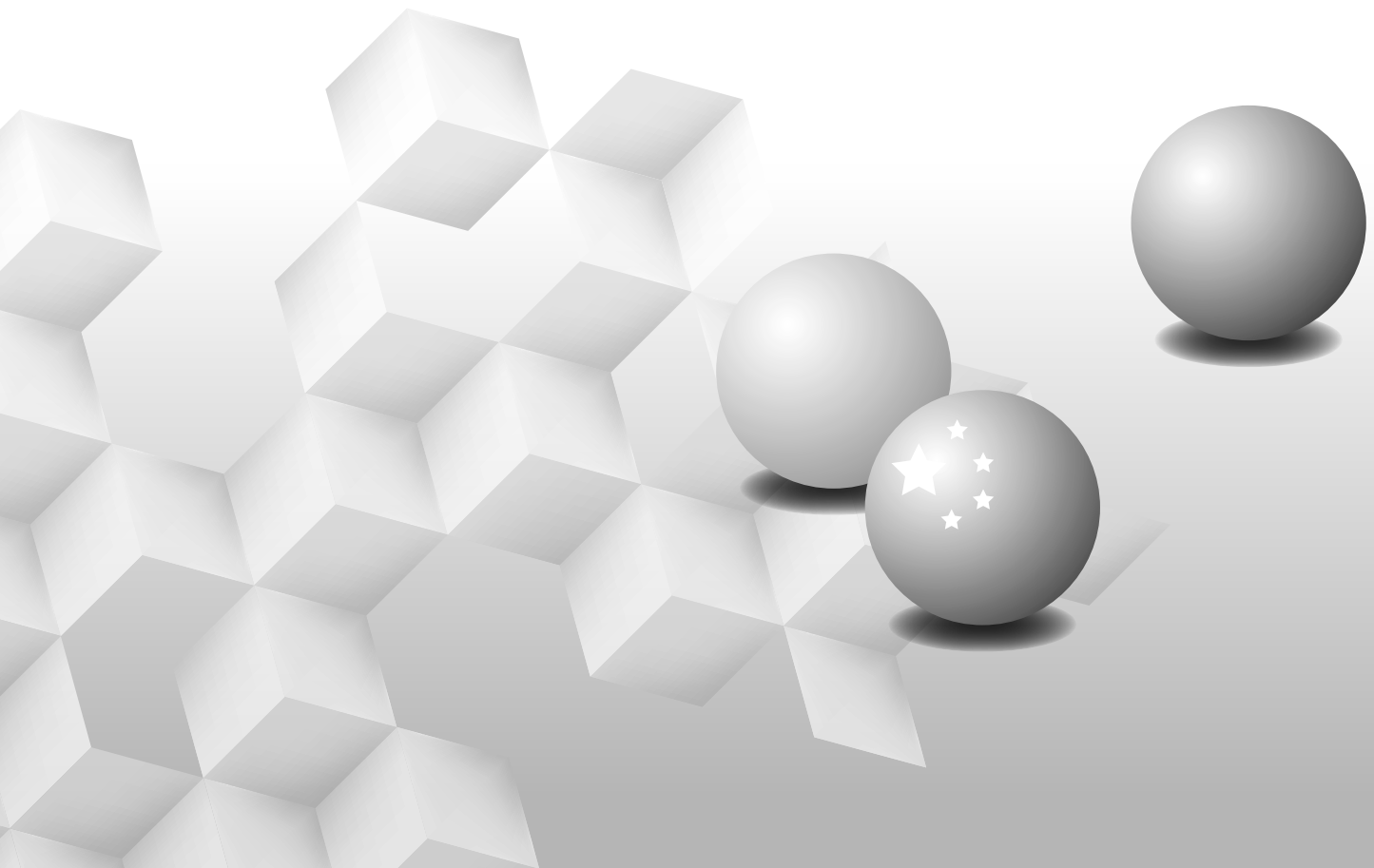
- 《遼寧“一帶一路”綜合試驗區建設總體方案》的通知  
[http://www.ln.gov.cn/zfxx/jrln/wzxx2018/201809/t20180910\\_3308127.html](http://www.ln.gov.cn/zfxx/jrln/wzxx2018/201809/t20180910_3308127.html)  
 東北抗日義勇軍 홈페이지  
<http://www.hr.gov.cn/jngins.asp?t=2&s=703&i=39089>  
 中國有了首座抗日義勇軍紀念館  
[http://www.ln.xinhuanet.com/gundong/2018-02/02/c\\_1122358330.htm](http://www.ln.xinhuanet.com/gundong/2018-02/02/c_1122358330.htm)  
 中日節能環境企業技術設備交流洽談會在沈舉辦  
[http://www.ln.gov.cn/zfxx/jrln/wzxx2018/201809/t20180928\\_3316580.html](http://www.ln.gov.cn/zfxx/jrln/wzxx2018/201809/t20180928_3316580.html)  
 朝鮮海鮮吸引大批中國吃貨：好吃且便宜得離譜  
<http://finance.sina.com.cn/china/gncj/2018-08-14/doc-ihqtawy3760029.shtml>

현대중국의  
이해

# 홍위병 용도폐기와 린바오의 죽음

박인성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홍위병 용도 폐기

마오쩌둥이 왜 “문화대혁명”이란 걸 일으키려고 작정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위에서 필자 개인의견으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요점만 다시 말하자면, 소위 “문화대혁명”이란 대약진 실패로 인한 좌절과 불안을 느낀 마오가 자신의 권력 유지와 강화를 위해 사상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기획, 조종, 발동한 한판의 사기극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혁명 연구에서 일정한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로더릭 맥파커(Roderick MacFaquhar) 교수는 자신의 저서 “문화대혁명의 기원”에서 두가지로 동기를 제시했다. 하나는 중공중앙 지도층내의 원칙과 기본 노선상의 분열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오쩌둥이 개인의 권력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필자는 물론 앞의 요인은 마오가 명분과 수단으로 끌어와서 이용했을 뿐이고, 뒤의 요인이 주 동기이자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소위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 유지 보호에 위협이 되는 당내에서 실용주의 경제정책으로 지지기반과 권위를 넓혀가던 류샤오치(刘少奇), 덩샤오핑(邓小平)으로 대표되는 지도층 간부들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 조종, 발동한 권력투쟁 책동이고, 이를 위해 기존 질서에 불만을 느끼고 있고 쉽게 선동할 수 있는 학원 내의 청년 대학생과 고교생, 심지어 철부지 중학생들까지 선동하여 홍위병 완장을 차고 학교내 기존 질서와 기득 권력은 물론 학교 밖의 당 조직을 전면적으로 파괴하도록 조종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선동 대상을 일반 노동자 집단으로 확대하고 전국을 내전 상태로까지 치닫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966년 5월, “문화대혁명” 발동 후 만2년이 조금 더 지난 1968년 여름 경에 달하자 중국 전국이 폭동과 내란 상태로 빠져 들면서 책동자이자 조종자인 마오쩌둥 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양태로 확대 진행되었다. 조반파 홍위병들이 군부대와 관련 기관을 공격하고, 무장장비를 탈취



<사진 1> 린바오가 조직 동원한 홍위병 놀이를 즐기는 마오쩌둥

하고 장병들을 살상하기 까지 했고, 또 은행과 창고, 상점 등을 약탈하고, 공공건물과 가정 집에 불을 지르고, 철도와 우편운송, 국가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1968년 7월 3일에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문혁소조가 중공중앙과 국무원까지 포함한 4자 공동 명의로 무력투쟁 중지 명령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장투쟁을 즉시 중지하고, 철로교통 등 각 거점에서 철수할 것.
2. 광시성 류저우(柳州) 철로국 관할 철로교통 전 노선을 회복시키고, 홍위병들은 경험교류를 위한 지역이동을 중단하고, 즉시 본 지구나 본 단위로 돌아갈 것.
3. 약탈해 간 물자와 인민해방군의 무기와 장비를 무조건 반환할 것.
4. 살인, 방화, 교통운수시설 파괴, 감옥 공격, 국가기밀 절도, 사설 방송 등은 현행 반혁명분자로 엄중히 법에 의거해 처벌할 것임.

그러나 이 같이 강력한 명령을 발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투쟁이 계속되자 7월 24일에 다시 제2차 포고를 발포했고, 7월 28일에는 마오쩌둥이 직접 베이징 각 대학의 조반파 홍위병 우두머리인 “5대 지도자(领袖)”들을 인민대회당으로 호출하여 면담하면서 이들을 호되게 질타했다. 베이징 소재 대학



<사진 2> 린바오와 함께 군중대회에 참석한 마오쩌둥

홍위병 “5대 지도자”란 베이징대학 여강사 니에웬즈(聂元梓), 칭화대학의 콤다푸(蒯大富), 베이징 사범대학의 탄허우란(谭厚兰), 베이징 항공학원의 한아이징(韩爱晶), 베이징 지질학원의 왕다빈(王大宾)이었다. 마오가 이들 5인 지도자를 호출한 이유는 바로 전날에 자신이 직접 지시하여 (무장투쟁을 제지하고 무기를 회수하라고) 가장 심하게 무장투쟁이 진행되고 있던 칭화대학에 약 3만명의 “수도 노동자 마오쩌둥 사상 선전대”를 파견했으나, 콤다푸 등 칭화대학 조반파 홍위병 지도 간부들이 무장 학생들을 동원해 이들 “마오 사상 선전대” 노동자들을 공격해서 수백명을 살상했다는 보고를 받고 극도로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마오와 조반파 지도자 5인과의 면담은 7월 28일 새벽 3시반에 시작되어 오전 8시 반까지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는 린바오, 저우언라이, 천보다(陈伯达), 캉성(康生), 그리고 마오의 처인 장칭(江青) 등이 배석했다.

노동자 선전대원들을 살상한 상황을 파악한 후 도피했다가 뒤늦게 면담 자리에 온 콤다푸가 마오에게 “노동자 선전대 막후에 검은 세력이 있다”고 말하자, 마오는 “내가 바로 막후의 검은 세력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자네들은 군중을 이탈했다. …, 내가 전국에 통고하겠다. 어떤 지방을 막론하고 광시(广西)에 발포한 포고에서 열거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반혁명분자로 처리하겠다. 인민해방군을 공격하고 교통시설을 파괴하면 병력을 동원해서 모두 포위 소탕해 버리겠다.”고 말했고, 또 “자네들의 문제는 농민을 이탈하고, 노동자를 이탈하고, 군대와 공농병을 이탈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약 열흘 후인 8월 8일에 중앙문혁 간담회에서 마오는 “학생들

은 공업도 농업도 교통도 군대도 파악하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소란만 떠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약 한달 후인 9월부터 중공중앙은 홍위병을 산간지구나 농촌지구로 보내는 하방(下放) 또는 상산하향(上山下乡) 추진을 결정했다. 바야흐로 홍위병은 용도폐기 하고 노동자 선전대를 홍위병을 대체하는 문혁의 주 추동세력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청년, 학생들을 농촌과 산촌으로 하방시키면서 내건 명분은 “농촌에서 농민과 함께 자신을 개조하고 사회를 개조하라”는 것이었고, 마오는 이것도 “문화대혁명”의 일부이고 교육혁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면의 실제원인은 도시경제 파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궁여지책이었고, 청년들에게 농촌에 가서 알아서 먹고 살라는 것이었다. 프랑스 학자 보냉(Michel Bonnin, 1949-)은 하방(下放) 또는 상산하향(上山下乡)운동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자원 신청 형식을 띤 대규모 집단방류”라고 표현했다. 마오와 중공중앙의 간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실제 상황은, 문혁의 중견세력이었던 이들 청년들이 내륙지구와 변방지구 농촌 기층단위로 가서 열악한 사회상황과 생활조건 속에서 고된 생활을 겪으면서 공산당의 선전과 혁명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환상이 깨지고, 한 때 불타오르듯 뜨거웠던 격정도 급속하게 식어가는 체험과 각성을 하게 됐다는 점이었다.

## 마오쩌둥, 린바오를 의심하기 시작하다

마오쩌둥은 탁월한 전략가이면서 동시에 강한 고집과 오기가 성격상의 특징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오는 그러한 능력과 성격으로 농촌지구에서 농민 선동을 주요 수단과 동력으로 삼아 토지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정권을 타도하여 내쫓고 중국대륙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기필코 반당(反黨) 또는 반혁명의 딱지를 붙이고 숙청하고야 마는 독단 행위 양태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해졌다.

한편, 대약진 운동의 처절한 실패가 드러난 후부터 마오의 또 다른 성격상의 특징인 변덕과 의심이 부쩍 심해졌다. 이는 자신의 권위와 권력 유지에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1959년 루산회의”에서 대약진 추진과정상의 문제를 직설적으로 지적한 펑더화이(彭德懷)를 “반혁명 반당분자”, “소련 스파이”등으로 몰아 숙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고, 이때 이후 마오쩌둥의 그 같은 행태는 마치 고삐가 풀린듯이 거리낌이 없어졌다. 린바오(林彪)가 펑더화이 대신 군부의 실권을 장악했지만 징강산(井岡山) 시절부터 마오와 함께 오랜 시절을 겪어온 린바오인지라 마오의 그러한 성격과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린바오는 1959년 루산회의 이후 특히 문화대혁명 초기 단계까지 마오쩌둥의 비호하에 인민해방군 군부내 실권을 장악하고, 마오가 조종하는 “문화 대혁명”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면서 중앙권력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상승 기류를 탔고 권력 서열 제2위와 마오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 받는 위치로까지 올라갔다. 그러던 름바오가 마오쩌둥의 의심과 경계를 사게 된 발단과 계기는 류샤오치 사망 이후 폐지된 국가주석직을 부활시키고 마오쩌둥이 그 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마오쩌둥은 국가주석직 부활에 거듭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름바오는 국가주석직이 부활되면 결국 자신이 맡게 될 것이라 굳게 믿고, 계속 국가주석직 부활을 주장했다. 름바오가 국가주석직 부활을 정식으로 제안한 때는 1970년 4월경 제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할 헌법초안에 국가주석직 신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자고 제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에게 거절 당했다.

그 무렵부터 마오는 문혁초기부터 즐겨 오던, 름바오가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진행한 천안문 광장 홍위병 집전 등 자신에 대한 우상화 놀음에도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싫증 내고 역겨워 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1970년 4월초에 마오는 인민일보 보도용 레닌 탄생 100주년 기념 문장 초고를 본 후, 름바오가 마오쩌둥 개인송배용으로 사용해 온 “마르크스-렌니주의를 참신한 단계로 끌어 올린 당대 가장 위대한 마르크스-렌니주의자”, “당대의 레닌” 등의 글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달았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쓸데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반감을 살 것이다. 이런 류의 표현을 쓰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대체 무슨 도리인가? 각 동지들은 연구하기 바란다.” 이어서 4월 하순에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는 “손권은 조조에게 황제가 되라고 권했다. 그 말을 들은 조조는 손권이 나를 화롯불 위에 올려 놓고 구워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손권이 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라고도 말했다. 국가주석직 부활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였다. 그러나 름바오는 국가주석직 부활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해 (1970년) 5월 중순에 자신의 측근인 공군참모총장 우파셴(吳法憲)에게 “국가주석이 없는 건 국가에 머리가 없는 것이다. 머리가 없으면 국가권위를 세울 수 없다”라고 말했고, 름바오의 처 예췌(叶群)은 우파셴에게 “만약에 국가주석직이 없으면 름바오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말도 했고, 이런 말들이 마오의 정보망에도 탐지되었다. 당의 주석인 마오쩌둥이 단호한 거절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동안에도 당의 부주석인 름바오는 계속 배후에서 국가주석직 부활 논조를 퍼뜨리고 기후를 조성했다. 이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태이고 마오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같은 상황속에 1970년 8월 23일 장시성 루산에서 중공 9기 2중전회, 즉 “제2차 루산회의”가 개막되었다. 이 회의를 전후로 름바오는 그동안 키워 온 자신의 파벌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인 조직적으로 국가주석직 부활이 필요하다는 기후를 조성했다. 그러나 름바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마오의 의심을 촉발시켰고, 결국 름바오는 마오에 의해 정리 및 숙청 대상이 되어 벼랑 끝 구렁이 속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마오의 처 장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4인방”은 원래 름바오를 후계자로 당장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관철시켰을 정도로 름바오와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름바오파와 권력투쟁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과 함께 마오의 의중을 간파한 후에, 름바오파의 권력 독점을 막고 자파세력을 넓히기 위한 절

회의 기회라 생각하고 린바오파에 대항하는 반대 논리를 폈다.

1970년에 개막된 “제2차 루산회의”의 주요 의제는 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할 헌법 초안 개정과 국민경제연도계획, 전쟁준비 등이었다. 8월 23일 회의 개막 전에 린바오는 마오쩌둥에게 할 말이 있다고 미리 그의 동의를 구했고, 마오가 개회를 선포하자 마자 할 말이 있다고 나서서 첫 발언을 시작했다. 린바오는 약 1시간 30분 정도 계속된 발언 내내 마오쩌둥의 천재성을 되풀이하며 강조하고, 마오쩌둥의 당과 국가의 영도자 지위를 헌법안에 포함하고 규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강조했다. 즉, 국가주석직 설치를 헌법 초안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마오는 린바오의 연설이 진행될수록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오후 3시에 개회하자 마자 시작한 린바오의 발언이 4시 30분 지나서 끝났다. 마오가 불쾌한 기색으로 다음 발언 예정자인 저우언라이와 kang성에게 통명스럽게 “당신들 말하십시오”라고 말하자, 두 사람은 마오의 기색을 읽고 “이미 내용이 담긴 인쇄물 자료를 배부했으니 발언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자 마오는 산회를 선포했다.

마오의 심사를 더욱 뒤틀리게 한 것은 린바오의 연설에 대한 그날 회의장의 반응과 분위기였다. 린바오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 전체에서 열렬한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고, 연단 바로 아래 첫줄에 앉아 있던 쉬스유(徐世友), 천시렌(陈锡联) 등 지방 군구 사령관들이 연단 위로 올라가 린바오와 악수를 했다. 이후 우파센의 제안으로 중앙위원 전원이 다시 모여서 린바오의 연설 녹음을 두번이나 다시 듣고, 그 다음 날 진행된 조별 토론에서도 회의 참가자 거의 모두가 린바오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오는 린바오의 인기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걸 보여 주는 이런 장면들을 냉랭한 태도로 방관하듯 대하고 있었지만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각 조별 토론에서는 린바오파인 천보다, 우파센, 예첸, 리쭈어펑(李作鹏), 추후이쥘(邱会作)가 각각 화북조, 서남조, 중남조, 서북조 등에서 전날 린바오의 연설과 같은 맥락의 내용을 되풀이 강조하면서 옹호하고 국가주석직 부활 설치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베이징에 있던 린바오의 측근이자 당시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황용성(黄永胜)도 이들과 비슷한 내용의 서면 발언 원고를 보냈다. 이 같이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린바오파의 행동과 발언 내용들을 보고 받은 마오쩌둥은 그 다음 날(1970. 8.25)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내가 일찍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국가주석 설치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말아라. 어쨌든 나는 말지 않을 것이다.” 고 자신이 국가주석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린바오에게 “나는 자네도 국가주석을 맡지 않기를 권한다. 그래도 누가 국가주석 설치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말도록 하라.”고 말하고, 곧 화가 잔뜩 난 어투로 “이런 식으로 계속 분란을 일으키면 나는 당중앙 주석직도 사퇴하고 산에서 내려가 버리겠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어서 마오는 각 분임조 회의에서 린바오 연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중지하고, 연설내용이 인쇄된 회의 간보(简报) 자료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치국회의를 열고 천보다 등에게 자아비판을 요구한다고 결의했다. 전날 각 대지구별 분임조에서 린바오의 연설을 지지하는 발언

을 한 우파셴, 예첸, 리쭈어펑, 추후이쥘 등은 자신들의 발언을 기록한 회의록을 회수하여 자신들의 발언 기록을 없애기 위해 허둥대고 다녔고, 뒤늦게 루산에 올라온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황용성은 자신의 서면발언 원고를 불태워 버렸다.

이때부터 름바오에 대한 마오쩌둥의 불신과 의심이 본격화 노골화 되었고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졌다. 제2차 루산회의로부터 1년이 지난 1971년 8월경에 이르러서는, 름바오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경우 어느 군구(军区)의 사령관(司令)이 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릴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베이징에 있는 군부 주요 지도자 대부분이 름바오를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한 마오는 당시 78세의 나이로 후베이성 우한(武汉), 후난성 창사(长沙), 저장성 항저우(杭州), 상하이 등 남부지역의 군부를 순회방문하면서 름바오의 발언과 행태를 비판하고 자신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확인·재점검했다. 름바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누가 들어도 름바오를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어법의 발언이 이어졌다. 가령, “1년 전에 국가주석직을 차지하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 …, “수천년에 한번은 천재가 출현해 왔는데, 중국에서는 지난 수천년 동안 천재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등이다. 마오가 남부지방 순시중에 후베이성 우한(武汉) 동호(东湖)변의 공군초대소인 동호빈관(东湖宾馆)에 묵을 때는 호텔 안 곳곳에 자신의 초상화와 어록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떼어 내라고 지시한 후, “마오 주석의 한 마디가 만 마디에 필적한다”는 름바오가 소위 “천재론”을 언급할 때마다 사용하는 말로 만든 어록을 가리키며 “어떻게 한 사람의 한 마디 말이 만 마디에 필적할 수 있는가? 이런 건 유물주의도 아니고 변증법도 아니다.” 라고도 말했다.

1970년 8월, “제2차 루산회의” 이후 마오쩌둥의 비판과 감시가 죄어 들어오고, 자신의 측근들은 모두 자아비판을 하는 상황 속에서, 마오의 공식 후계자이고, 중공 당내 권력 서열 2인자로서의 당당했던 름바오의 기세는 급속하게 사라져 버렸다. 1971년 5월 1일 베이징 천안문에서 5.1노동절 기념행사에 마지 못해 참석한 름바오는 천안문 성루에서 마오쩌둥과 한마디도 안 하고 구석자리에 풀이 죽은 모습으로 앉아 있다가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마오에게 간다는 말도 인사조차도 없이 나가 버린 기이한 장면이 현장기록사진을 찍던 촬영기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 림바오의 죽음과 5.17 공정기요의 내용

마오쩌둥이 름바오를 숙청하기로 결정한 주요 계기로 거론되는 사건은 국가주석직 부활에 관한 이견과 충돌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첫째는, 1969년 8월말에 중국 정보당국이 소련군이 중국에 기습적인 핵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발생했다. 중공 중앙은 10월 15일에 회의를 열고, 핵공격에 의해 지도자 집단이 한꺼번에 몰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오쩌둥, 름바오, 주더 등 당정 주요 지도자들을 각 지구로 분산시키기로 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10월 18일에 린바오가 전군에 분산 명령을 내리고 주요 포대에 발사 준비를 완료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중대 군사적 결정과 명령은 응당 군사위원회 주석인 마오쩌둥에게 사전 보고해야 할 사항이었으나, 군사위원회 부주석인 린바오가 보고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마오는 진노했다. 둘째는 1967년 5월에 인민해방군 관련 역사 기록에, “인민해방군은 마오 주석이 친히 창설하고 지도하며 린바오 동지가 직접 지휘하는 위대한 인민의 군대이다”라고 작성된 구절을 본 마오가 불만스런 어투로 “창설한 자는 지휘할 수 없는가?”라고 수차례 말한 적이 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믿고 강조해 온 마오에게 그 같은 표현과 기록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결국 린바오는 자신을 향한 마오쩌둥의 말과 행동에서 숙청 기류가 점차 강해지고 좁혀 들어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1971년 9월13일 새벽에 허베이성(河北省) 베이다이허(北戴河) 군용 비행장에서 자신의 처 예쥘(叶群)과 아들 린리궈(林立果)와 함께 군용기(영국제 트라이던트 항공기)를 타고 소련으로 망명하기 위해 국외 탈출을 시도하다가 타고 가던 군용기가 몽골인민공화국 온두르한(溫都爾汗) 초원에 추락했고, 몽골인민공화국 지역 경찰이 출동하여 드넓은 초원을 수색하여 초원 곳곳에 흩뜨려져 있던 잔해들을 모아 놓았는데, 그 안에 새까맣게 타거나 불에 그슬린 남성 시체 8구와 여성 시체 1구가 있었다. 이후 소련 당국에서 이 시체들에 대한 유전자 감식까지 한 결과 린바오와 그의 가족들의 시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되었다.



<사진 3> 몽골 온두르한 초원 현장 비행기 추락 잔해

그러나 “9.13”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배후와 동기, 실상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의 관련자료 비공개와 보도 통제 등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9.13 사건” 이후, “마오주석의 공식 후계자 린바오와 그의 아들 린리궈(林立果) 일당이 주석을 암살하려고 기도했다가

실패하자 소련으로 도주하려다 발생한 사건”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당시 25세였던 린바오의 아들 린리궈는 베이징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23세 때인 1967년 3월에 린바오의 최측근인 공군사령관 우파셴의 안배로 공군에 입대했고, 바로 공군사령부 당위원회 판공실 비서가 되었다. 우파셴은 1969년 10월에 다시 린리궈를 천재라고 치켜 세우면서 판공실 부주임 겸 작전부 부부장으로 승진 임명했고, 곧 이어서 군 입대 2년 반 밖에 안 지난 린리궈에게 공군의 지휘권을 넘겼다. 린리궈는 공군사령부 판공실 부주임 저우위츠(周宇驰), 공군 부참모장 왕페이(王飞) 등과 함께 공군사령부 내에 “조사연구소조” 조직을 만들고, “아, 해군”이란 일본 영화를

본 후 일본 해군과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며 “조사연구소조”의 이름을 “연합함대”라 명명했고, 1971년 3월에는 상하이에서 연합함대 구성원이고 대부분 30대 장교들인 저우위츠, 위신예(于新野), 7341부대 정치부 부처장 리웨이신(李伟新) 등과 무장기의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린리궈는 당시의 정세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군대가 압력을 받고 있는 현재의 정국을 분석해 볼 때 마오의 목표는 후계자를 바꾸는 데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 속수무책으로 생포되느니 죽을 각오로 임하는 것이 낫다. 군사행동으로 먼저 선수를 쳐서 기선을 제압하고 상층부 회의를 소집한 후 일망타진한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 린바오의 권력 승계가 가능한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평화적 승계는



<사진 4> 몽골 운드르한 초원에서 불에 그슬린 채 발견된 린바오의 시신

(마오가 죽을 때까지) 약 5-6년간 기다려야 하는 데 너무 길다. 후계자의 위치를 지키기 어렵다. 따라서 무장기의를 통해서 B-52(마오를 가리키는 암호명)를 제거해야 한다.” 린리궈는 위신예에게 “이 일은 나와 수장(린바오)이 이미 의논을 했으니, 당신이 실행계획을 짜봐라” 라고 지시했다. 이들 자칭 “연합함대” 소조는 자신들이 기획하는 일의 명칭을 무장기(武起义: wuqi)의 중국어 발음을 따서 “571”로 정하고, 무장기의 행동계획 강령의 명칭도 “571공정기요”라 불렀다. 소위 “571공정기요”에서는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조종한 수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그는 오늘은 이것으로 저것을 타격하고 내일은 저것으로 이것을 타격한다. 간부를 자극해서 군중과 싸우게 하고, 군중을 자극해서 군중과 싸우게 하고, 군대를 자극해서 군대와 싸우게 하고, 당원을 자극해서 당원과 싸우게 하는 방법이 그의 무력투쟁의 주된 동력이었다. 모순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어서 분열시켜 통치하고 각개 격파해서 통치지위를 유지한다. 오늘은 감언이설로 어떤 사람을 꼬드기고 내일은 그 사람에게 날조된 죄를 뒤집어 씌운 뒤 사지로 몰아 넣는다. 오늘은 귀빈자리에 앉혔다가 내일은 감옥에 감금한다. 처음에는 그에게 치켜세워줬다가 나중에는 정치적 사형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과거 그의 비서는 자살하거나 수감되었다. 그의 몇 안되는 전우와 측근들도 그에 의해 감옥으로 보내졌다. 심지어 그의 친아들도 그가 미치게 했다. 그는 의심광 학대광이다. 그의 손 아래에서 주마등처럼 무너져간 인물들 모두가 그의 희생양이었다. ……”

또한 “기요”에는 로켓포 폭격, 자동차 사고, 암살, 납치, 도시유격 소분대 등의 특별수단을 이용하여 마오를 제거 또는 제압하고 전국 정권을 탈취하거나 광둥성 광저우에 제2 당중앙을 조직해 할거 국면을 조성하고, 소련의 힘을 빌린다는 시나리오 등의 내용도 들어 있었다.

린리궈가 이런 일을 도모하고 있던 그 무렵에 마오쩌둥은 남쪽의 후베이성 우한, 장시성(江西省) 난창(南昌), 저장성 항저우, 상하이, 장쑤성(江苏省) 난징(南京) 등지를 순시하는 도중에 보고를 통해서 린바오와 예첸 일파의 비정상적이고 의심스러운 징후들을 감지했다. 난창에서 장시성 서기로부터 보고 받을 때 마오가 특히 주목한 점은 “연합함대”의 구성원인 저우위츠가 최근에 두차례나 은밀하게 장시성 일대로 내려와서 활동하고 다녔다는 점이었다. 마오의 비서 왕동싱(王东兴)의 회고록에 의하면 마오는 이 말을 들은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하고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을 멀리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한다. 다음 날 항저우에 도착한 마오는 또 다시 예첸과 린리궈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고, 그 즉시 예정된 행선지와 계획된 열차 노선을 바꾸어 운행하라고 지시하고 급히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허베이성 발해만의 휴양지인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칩거하고 있던 린바오와 예첸은 남방 순시중인 마오의 행적과 담화내용을 수집, 파악하던 중에 사태가 돌이킬 수 없게 급박하게 진전되고 있는 걸 감지하고, 아들 린리궈와 함께 소련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하고 감행하던 중에 타고 가던 군용 비행기가 몽골 초원에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불에 그슬린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이 중공과 마오쩌둥, 그리고 중국과 중국 인민 전체에 준 충격과 영향, 그리고 그 여파는 매우 강렬했다. 마오쩌둥 자신이 공식 후계자로 지명하여 당장(黨章)에 명시된 국가권력 서열 2인자로서 문화혁명과 마오쩌둥 개인숭배 광풍을 앞장 서서 지휘하던 자가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은 대다수 중공 당원과 중국 인민들을 충격을 넘어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초기에 비해 동력을 잃어가던 “문화 대혁명”에 대해 다시 돌이켜 생각(反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들이 마오가 조종한 정치놀음에 이용 당하고 속아왔다는 의식과 자각을 하게 되었고, 공산당이 내건 각종 구호와 운동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급속하게 냉소와 침묵으로 바뀌었다. 마오가 “문화대혁명”이라 작명한 사기극의 막이 그렇게 내려졌다.

(계속)

### [박스 해설]

린바오(林彪)는 1907년 후베이성 출생으로 마오쩌둥(1893년생)보다 14세, 펑더화이(1898년생)보다 9세 아래이다. 1925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했고, 징강산(井岡山) 시기에 홍군 영장(营长), 단장(团长), 군장(军长), 군단장(军团长) 등 직책을 역임했고, 항일전쟁 시기에는 팔로군(八路军) 115사 사단장을 역임했다. “해방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제2차 국공내전 시기에는 동북야전군 사령원(司令员) 등 직책을 맡고 랴오닝-선양전투(辽沈战役), 베이핑-톈진전투(平津战役) 등 중대한 전투를 지휘하면서 국민당 군대와 전쟁에서 중공의 인민해방군이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전공(戰功)을 세웠고 이러한 경력과 전공으로 인해서 “전쟁의 천재”, “전쟁의 귀신”이라고도 불렸다. 해방전쟁 승리 후 신중국에서는, 1959년 루산회의에서 펑더화이가 숙청된 후부터 국방위원회 부주석(副主席), 국방부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직책을 역임하면서 군부를 장악하고 배후에서 문화혁명을 지원하며 중앙권력무대에서 승승장구했으나 1970년 “제2차 루산회의” 이후 마오쩌둥의 숙청 대상이 되었고, 1971년 9월 13일, 처 예첸(叶群)과 아들 린리궈(林立果)와 함께 소련으로 망명을 기도하며 타고 가던 군용 비행기가 몽골 운드르한(温都尔汗) 초원에 추락하면서 생을 마감했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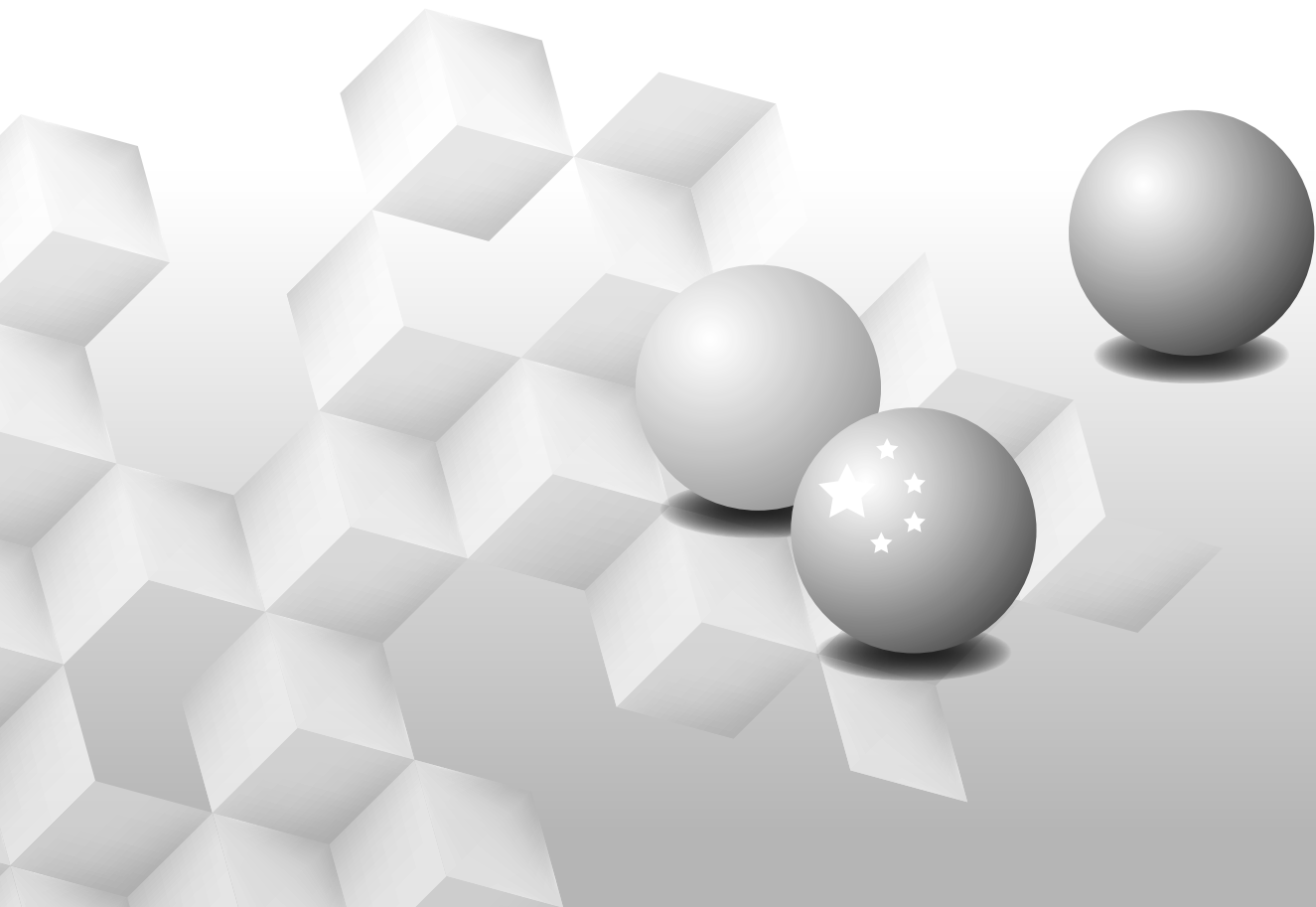
- 알렉산더 판초프 외. 심규호 외 옮김(2017), 『마오쩌둥 평전』, 민음사  
 프랑크 디뢰터·고기탁 옮김(2017), 『문화대혁명, 중국 인민의 역사 1962-76』, 열린책들  
 연광석 외 역(2014), 『전리군과의 대화』, 한울아카데미  
 왕단·송인재 역(2013), 『왕단의 중국현대사』, 동아시아  
 전리군(첸리첸)·연광석 옮김(2012), 『모택동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상,하』, 한울아카데미  
 필립 판·김춘수 옮김(2010), 『마오의 제국』, 말·글·빛남  
 모리스 마이스너·김수영 옮김(2004),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2』, 이산  
 胡哲峰, 于化民(2013), 『毛泽东与林彪』, 新世界出版社  
 賈章旺(2012), 『毛澤東從韶山到中南海(下)』, 中國文史出版社.  
 中共中央黨史研究室(2011), 『中國共產黨歷史第一卷(1921-1949)上冊』, 中共黨史出版社.  
 林蘊暉(2008), 『国史礼记-事件篇』, 东方出版中心  
 罗平汉(2006), 『当代历史问题礼记二集』, 世界知识出版社  
 柯延主編(2004), 『毛澤東生平全記錄(上)』, 中央文獻出版社.  
 张涛之(1998), 『中华人民共和国演义(上、中、下卷)』, 作家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1996), 『毛澤東傳(上)』, 中央文獻出版社.  
 薄一波(1993),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上下卷』, 中共中央党校出版社.



## 5. 중국 무역선과 사신들이 드나들었던 안흥항과 안흥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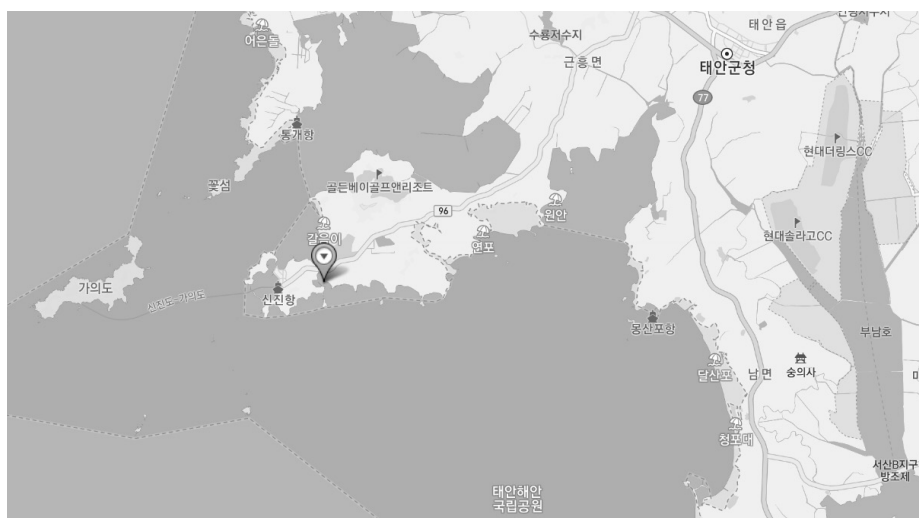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 중국 무역선과 사신들이 드나들었던 안흥항(安興港)

안흥항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188-8(구 신진도리 180-4)에 위치한다. 태안반도 남서부에 있는 항구로서 서해 중부의 중심어항이다. 안흥항은 태안읍에서 지방도를 따라 서쪽으로 17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본토에 있는 내항(內港)과 신진도(新津島)에 있는 외항(또는 신항, 신진도항이라고 부름)이 마주보고 있으며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충청남도의 대표항이라고 할 만큼 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한국 본토로서는 서해로 가장 깊숙이 파고들어가 있는 곳이다.<sup>1)</sup>



<그림> 태안 안흥항의 위치도

자료: 다음 지도

안흥항은 「대동여지도」에는 굴포(掘浦)라는 지명으로 적혀 있는데 원래 안흥(安興)이라는 지명은 안흥량(安興梁)에서 유래하였다. 이 항구는 고려와 송나라 무역선이 오가던 곳이며, 조선시대에는 중국 사신들이 드나들었던 국제항이기도 하였다. 또한,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호남지방의 세곡을 서울로 운송할 때 배들이 안흥량과 관장목을 지났는데 이곳의 수로가 매우 험해서 조운선의 선단이 자주 파선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이곳



<그림 2> 『대동여지도』의 안흥항(굴포) 일대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1) 네이버\_두산백과: 「안흥항」 참고

이름은 원래 난행량(難行梁)이었다.<sup>2)</sup>

## 난행량(難行梁)이라는 이름을 싫어해 지어진 이름 안흥량(安興梁)<sup>3)</sup>

안흥량이라는 이름은 바닷물이 험하여 조운선이 이곳에 이르러 누차 낭패를 보았으므로 사람들이 난행량이라는 이름을 싫어하여 안흥량이라는 이름으로 고쳤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안흥량이라는 이름은 중국 소아라 사신의 영송소로 건립한 ‘안흥정’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아무튼 이름이 바뀐 시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안흥이라는 이름은 고려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안흥(安興)’은 이미 고려조에 여러 곳에 두루 쓰이던 말이다. 관련 지명으로 안흥성지·안흥신항이 있다. 안흥성지에 대해서 『해동지도』에는 원형의 성곽과 함께 ‘안흥진(安興鎭)은 읍치에서 40리’라고 쓰여 있다.

『1872년 지방지도』에는 4문이 있는 성곽의 외형과 함께 성내의 태국사(泰國寺)·군기고·작청·내아·동헌·장관청·사령방 등 12개 건물들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다.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에는 안첨(安僉)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백제시대부터 당나라와 교역했던 안흥항

안흥항은 언제부터 항구로써의 역할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자료에 따르면 백제시대에 이미 당나라와 교역을 했던 항구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송나라와 교역을 많이 해 송상(宋商)들이 이곳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안흥항도 물류의 기지로 변모하고 있고 태안의 최고 관광 명소 중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림 3> 안흥항 전경(자료: 태안군청)

2) 네이버 지식백과\_한국지명유래집 충청편 지명 참고

3) 네이버 지식백과\_한국지명유래집 충청편 지명, 두산백과: 「안흥항」 참고

최근에는 안흥항의 맞은편에 위치한 신진도에 신항이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의 어선들은 신항으로 옮겨가고 현재의 안흥항(내항)은 낚싯배와 유람선이 출항하는 항구로 바뀌었다. 안흥항 주변에는 신진도를 비롯해 마도, 가의도 등 여러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하고 경관도 수려해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

## 중국 사신을 보내고 맞아들었던 객관, 안흥정(安興亭)

안흥정은 중국 사신을 보내고 맞아들었던 객관시설이다. 고려 문종(文宗) 때 정해현(貞海縣)에 세워졌다고 한다. 안흥정은 원래 중국 사신들을 맞거나 영접하는 정자는 고만도(高巒島: 지금의 보령시)에 있었는데 바다에서 멀고 배를 대기도 불편하여 문종 31년(1077년)에 새로 안흥정을 세워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고 한다.<sup>4)</sup>

하지만 안흥정의 위치는 기록마다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sup>5)</sup> 태안군문화원은 안흥정의 위치는 송나라 사신인 서경(徐兢)의 『고려도경』에 근흥면 신진도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진도리 일대에 안흥정이 소재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김한국 태안군문화원장은 조사를 통해 신진도리 신진분교 일대 지역에서 명문기와를 비롯한 청자 및 백자 조각 등 다량의 유물을 수습, 사신 접대를 위한 기와 건물지의 존재를 추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시굴 및 발굴 조사를 통해 안흥정 명문 기와가 출토될 경우 안흥정 위치에 대한 논란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sup>6)</sup>

따라서 태안군은 시굴 및 발굴 조사를 통해 안흥정 위치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향후 근흥면 안흥진성 내 안흥정 역사복원 사업을 추진해 증장기적으로 중국관광객 유치와 해상 관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3> 안흥정 복원을 위한 학술 발표회

자료: 충청일보(2015. 11. 11)

4)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고전종합DB: 「안흥정」 참고

5) 안흥정(海美安興亭)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마다 다르다. 송나라의 사신인 서경(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마도[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그 위치가 “해미현(海美縣)의 동쪽 11리” 지점이라고 나와 있다. 이 중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말한 위치에 건물 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 자료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안흥정의 추정 건물 터는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한서대학교 부근의 신선봉 능선 정상부에 위치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안흥정 터) 안흥정은 처음에 보령에 소재하다 이후 서산 해미를 거쳐 태안 마도로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보는 견해(윤용현, 2010)도 있고 여러 정황상 태안 마도로 비정하는 견해(문경호, 2016)도 있다.

6) “고려시대 ‘안흥정’ 역사 되살린다”(동양일보 2015. 11. 11)

## 거상과 보부상이 드나들었던 안흥성(安興城)

안흥항에서 멀지 않은 근흥면 정죽리에 안흥성(일명 ‘安興鎭城’)이 자리하고 있다. 이 성은 조선조(朝鮮朝)의 효종(孝宗)6년(1655)에 축조(築造)된 석성(石城)으로서 둘레 1,568미터에 높이는 3.5미터이다. 안흥성은 1976년 1월 8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11호 지정되어 현재 관리 중에 있는데, 동학혁명(東學革命) 때(1894) 폐성되었다.<sup>7)</sup>

하지만 조선 초기인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안흥 반도의 안흥성 안에는 기와집이 300여 채 있었다고 한다. 중국 사신이 오가던 곳에는 교역이 빈번하고 돈과 물자가 오가기 마련이라 자연스럽게 거상과 보부상이 이곳을 드나들며 물건을 거래했을 것이다. 축성을 담당했던 경기사 김석견은 효종에게 “이곳은 바다 가운데로 수십 리를 뻗어 들어가 있으므로 여기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양곡을 저장하면 강도의 표리(表裏)가 되고, 밖으로는 호남과 영남을 제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북벌의 꿈을 꾸던 효종이 교통 요지였던 안흥 반도에 성을 축조하여 향후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발판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가 고종 31년(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건물이 대부분 소실되고 성곽 역시 많이 훼손되었다.<sup>8)</sup>



<그림> 태안 안흥성 전경(자료: 태안군청)

## 안흥항, 고려 해상뱃길 복원을 통한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심지로

안흥항은 백제시대 때 이미 당나라와 교역을 했던 국제 항구였으며 이후 고려시대에는 송나라와 교류가 잦았던 항구였다. 안흥항을 통해 중국 사신들이 많이 왔고 또 이 항구를 통해 사신들이 중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안흥항 주변에는 중국 사신들이 머물 수 있었던 객관시설인 안흥정이 소재했던 것이다.

태안군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안흥정 복원을 위한 사업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태안군이 과거 중국과의 교류의 역사를 복원해 이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근 서산시의 대산항과 중국 산둥성 룡연

7) 태안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_유형문화재\_안흥성

8) “한반도의 역사를 닮은 안흥반도, 안흥성과 안흥항”(오마이뉴스 2017. 08. 29)

항 간 여객선 취항 시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좋은 소재인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갑작스레 터진 한중 간 사드(고고도미사일) 갈등으로 이러한 계획은 진전되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 간 관계가 정상화 되고 중국 관광객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대산항과 룡옌항 간 여객선 취항도 내년 초로 예정되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 관계가 복원되고 대산항과 룡옌항 간 여객선이 취항되면 태안과 서산 지역에 중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안군이 계획한 안흥정 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동양일보(2015. 11. 11). 고려시대 '안흥정' 역사 되살린다.  
 문경호(2016). 1123년 서금의 고려 항로에 대한 재검토: 夾界山~馬島 安興亭 구간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78, 71-106.  
 오마이뉴스(2017. 08. 29). 한반도의 역사를 닮은 안흥반도, 안흥성과 안흥항.  
 윤용혁(2010). 고려시대 서해 연안해로의 객관과 안흥정. 역사와 경계 74, 29-57.  
 충청일보(2015. 11. 11). 태안군, '안흥정' 역사복원 통해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한다

「충청중국포럼 소식」

# 제33·34회 충청중국포럼

## 제33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충남과 차이나(China)는 관광전략

- 지난 8월 29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아주경제신문 홍석민 기자가 “충남과 차이나는 관광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충남연구원 원내 연구원들과 도 및 각 시군 중국교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그림1> 홍석민 기자의 발표 사진과 종합토론 사진

- 이번 포럼에서는 충남의 관광자원과 중국 관광객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충남의 자원에 알맞은 중국 관광객 타깃층 선정과 효율적인 전략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우선, 충남도는 유명관광명소,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 중국 관광객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00만 명(교포 및 승무원 제외)이었으며, 이는 사드 배치 여파로 전년대비 약 48%가 감소된 수치라고 하였다. 관광객의 연령별 분포에서 20대가 31%, 30대가 17%, 노년층이 24%를 차지하며, 중국 관광객의 78.8%가 서울을 주로 찾으며 이외에도 부산, 제주, 전주, 남이섬 등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관광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왕홍,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얻고 있으며 한국 관광에서 맛집, 쇼핑, 숙박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 홍보전략적 차원에서 팸투어, 서포터즈, 기자단 세개 채널에 대해 비교하였고 그 중 중국에서 뜨고 있는 왕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왕홍은 인터넷스타를 칭하는 신조

어로써, 이들은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먹거리,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 중인데, 뷰티브랜드 “에스티로더” 회장은 중국시장에서는 “TV광고보다 효과가 크다”고 한 바 있다고 하였다.

- 충남의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대산항과 통영항의 정기노선 취항에 대비하여 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광객들의 쇼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쇼핑몰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 도내 관광지 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네 번째, 개별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네 번째 방안을 위해 여행객에게 편리함과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는 앱 개발 등 모바일 관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충남의 여행자원을 활용한 사찰체험, 병역체험, 해안체험 등 지역에 특화된 여행상품 개발도 적극 추천하였다.

●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도 및 시군 중국교류 담당자들의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 논산시 국제교류팀 김관기 팀장은 논산 썬샤인랜드에서 촬영 중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중국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였다. 마침 사드 보복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고 하였다.
- 보령시 대외협력팀 최철구 팀장은 보령 머드박람회와 국제행사로 승인받았는데 오늘 발표내용을 토대로 왕홍 등 신흥홍보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겠다고 하였다.
-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보령은 관광의 요소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전횡장군, 유격장군 청덕비 등을 활용하여 관광매력을 더 할 것을 제안하였고, 논산시에는 썬샤인랜드와 더불어 강경 화교학교의 역사를 활용하여 관광과 역사를 잇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끝으로 홍석민 기자는 관광자원 규모에서는 절대적으로 중국에 뒤지지만 아기자기한 여행상품을 마련하여 틈새시장을 노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중국 관광객들도 농촌투어, 그린투어 등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지명은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

## 제34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충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구조 변화와 시사점

- 제34회 충청중국포럼이 지난 9월 19일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충남연구원 송영현 박사가 “충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입구조 변화와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포럼에는 충남연구원 윤황 원장, 권영현 연구실장,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 단장, 도 중화권팀장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그림1> 제34회 충청중국포럼 주요 참석자 및 송영현 박사 발표사진

- 송영현 박사는 2000~2017년 기간 충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입구조 변화를 설명하고, 중국 농식품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충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전략을 제안하였다.
  - 우선, 충남 1차 산업 수출입 구조 분석을 통해,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중국이 충남 1차 산업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을 설명하였다.
  - 이어서 중국 농식품 시장의 변화추세와 주요특징을 설명하였다.
    - 2010년대 이후 중국 수입식품시장은 매년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기준 미화 약 562억 달러의 수입규모를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식품 원산지 국가 상위 10개국 중 한국은 10위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 중국 농식품 시장의 주요 변화를 2, 30세대가 중심이 된 신(新)소비계층의 소비 증가, 지역별 소비격차 심화, 신규 온라인 시장의 가파른 성장, 온·오프라인을 결합하는 O2O 형식의 새로운 유통방식 대두 등으로 설명하였다.

- 또한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지원 현황도 살펴보았다.
  - 충남은 90년대부터 운영해오던 상해사무소를 2016년에 폐쇄해 현재는 중국 현지 오프라인 거점을 통한 수출지원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원도 미비하다 말하였다. 2017년에 중국의 대표적인 C2C 쇼핑몰 타오바오에 충남관을 외부기관 위탁을 통해 개설했었으나, 판매실적이 부진했고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였다.
- 송영현 박사는 사드갈등 봉합 이후,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활성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충남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첫째, 경기 GBC, 전남 상해통상사무소와 같이 현지 오프라인 거점을 마련하고 현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둘째, 위챗(wechat) 및 중국 지역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역직구 방식을 통한 O2O사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셋째, 중국에 우수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가진 현지업체가 충남의 농식품을 일정규모 이상 수입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넷째, 기업인 대상의 정례화 된 수출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도 및 시군 중국교류 담당자들의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중소기업들이 진출 가능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O2O 유통방식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강의였고, 향후 3농혁신대학에서 같은 주제로 강의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 도 중화팀 김은숙 주무관은 도의 대중국 교류활동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국내 대학생, 중국유학생 등 젊은 층의 아이디어를 많이 참고하여 경제,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끝으로 충남연구원 송두범 박사는 오늘의 주제가 충남 6차 산업 분야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6차 산업은 아직 국내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중국 내수시장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충남이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대중국 수입도 전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용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8.10)

호수	발간월	주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축
제2호	2015년 7월	신상대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12월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제11호	2016년 11·12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제12호	2017년 3·4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제13호	2017년 5·6월	중국 대기오염의 현황과 시사점
제14호	2017년 7·8월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동향과 시사점
제15호	2017년 9·10월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개발: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석
제16호	2017년 11·12월	중국 수산업의 최근 발전 동향
제17호	2018년 1·2월	중국 전기자동차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18호	2018년 3·4월	2018년 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이슈 및 충남에 대한 시사점
제19호	2018년 5·6월	충남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 1차 산업
제20호	2018년 7·8월	충남 시·군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 1차 산업
제21호	2018년 9·10월	중국 지방정부의 온라인 정부서비스 활용 현황 및 시사점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http://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